

# 프랑스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의 歷史的 特徵에 관한 一研究

金 宗 炫\*

<目 次>

- I. 序 言
- II. 企業의 存在形態
- III. 企業의 産業金融과 經營管理
- IV. 企業家活動의 評價
- V. 企業風土=社會·文化的 環境
- VI. 結 語

## I. 序 言

프랑스經濟는 19世紀初에서 20世紀 中葉에 이르는 150年間の 長期間에 걸쳐서 漸次的으로 成長하였으며 時期에 따라서는 相對的으로 '沈滯'의 局面을 수반하였다. 즉 프랑스經濟는 그동안의 여타 資本主義諸國의 經濟에 비해서 經濟成長, 工業化, 人口增加, 都市化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그 實績이 두드러지게 不振하였다. 그 결과 19世紀初만 하더라도 우월하던 프랑스의 經濟的 地位는 20世紀에 이르러서는 相對的으로 크게 低下하였으며 그러한 상태는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계속되었다.

프랑스經濟의 長期間에 걸친 低成長 내지 相對的 '停滯'의 要因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경우 일반적으로는 人口의 低成長, 所得分配의 不公平, 높은 貯蓄性向, 個性的·藝術的 商品을 選好하는 消費패턴 등에 따르는 需要條件의 制約이라든가 工業原料 특히 石炭不足, 階級分化的 低位에 따르는 勞動力不足, 銀行의 性格과 관련된 資本 不足 등에 따르는 供給條件의 制約 등의 經濟的·客觀的 諸要因과 함께 國家의 經濟政策 및 企業家活動 등 經濟主體의 行動樣式的 性格 등이 지적되어 왔다.<sup>(1)</sup>

長期에 걸친 프랑스經濟의 低成長과 관련해서 論者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논의되어 온 것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論文은 現代造船研究費의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1) 拙稿, 「佛蘭西産業革命의 性格과 그 原因」, 『曉岡崔文煥博士追念論文集』, 1977, pp.127-152 참조.

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의 保守性·消極性이었다. 특히 프랑스 企業家活動의 保守性·消極性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란데스(David S. Landes)와 소우이어(John E. Sawyer)였다. 그들은 1950년을 전후하여 第2次大戰後의 프랑스의 經濟復興이 유럽의 여타 資本主義諸國의 경우에 비해서 不振하였던 現實에서 프랑스 企業家活動의 保守的·消極的 性格에 주목하고 長期間에 걸친 프랑스經濟의 低成長의 基本적 原因으로 資本主義 經濟發展을 주도해야 할 經濟主體로서 企業家가 革新的·積極的 活動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2)</sup> 그들의 見解는 크게 注目되고 그후 이 문제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그의 見解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나 一面的인 인식이라는 批判도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經濟가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先進資本主義諸國 一般에 비해서 安定的으로 高度의 成長을 지속함으로써 프랑스經濟의 實績을 적극적 肯定的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企業家活動의 革新性·積極性이 새로이 評價되게 되었다.<sup>(3)</sup> 프랑스 企業家活動의 性格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의 保守的·消極的 性格과 함께 그의 革新的·積極的 측면도 종합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한 앞으로의 研究는 이러한 方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研究史的 背景에서 本稿는 19世紀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의 역사적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本稿에서 筆者는 먼저 프랑스企業의 存在形態上的 특징을 企業의 規模와 法的 構造의 측면에서 고찰하고(II), 企業家活動의 특징을 企業의 金融과 管理의 측면에서 고찰한 후(III), 프랑스 企業家活動의 評價에 관한 학자들의 諸見解를 고찰하였으며(IV),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企業家活動을 낳게 한 企業風土=社會文化的 環境을 고찰하였다.

## II. 企業의 存在形態

### 1. 企業規模

프랑스 企業의 存在形態上的 특징은 規模面에서 볼 때 그 小規模性·零細性에 있다. 農業國으로서의 뿌리 깊은 傳統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家族勞動을 중심으로 하는 自作農經營이 一般的이고, 商業에서도 小規模經營이 특징적이다. 한편 工業에서도 프랑스는 오랜 工業化過程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1962년 현재 프랑스 工業에서는 總 50만 經營體(établissements)<sup>(4)</sup>에 약 530만명의 從業員이 고용되

(2) 本稿 pp. 28-32 참조.

(3) 本稿 pp. 32-4 참조.

(4) 經營體는 單一地區에 위치한 한 企業의 諸部分이다. 經營體는 한 企業보다는 작지만, 그 企業이

고 있었으며, 單位經營當 平均從業員數는 10.6名이었다. 프랑스의 單位經營當 平均從業員數는 西유럽諸國의 그것의 2분의 1 그리고 美國의 그것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었다.<sup>(5)</sup>

물론 프랑스의 工業企業이 모두 中小零細企業만은 아니다. 自動車, 機械, 鐵鋼 및 造船 등 諸部門에서는 다른 先進工業諸國과 맞먹는 大企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表 1>은<sup>(6)</sup> 工業部門에 따른 經營單位の 構造를 나타낸 것이다. 勞働者總數의 51.9%와 工場總數의 79.5%를 차지하는 그룹 1(食品, 金屬, 섬유)에서는 勞働者의 60%가 100명 이하 규모의 工場에 고용되고 있으며, 工場單位當 平均勞働者數는 7명이었다. 中小零細企業은 이 部門에서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한편 勞働者總數의 28.1%와 工場總數의 12.3%를 차지하는 그룹 3(機械, 自動車, 鐵鋼)에서는 勞働者의 42%가 1,000名 이상 규모의 工場에 고용되고 있으며 工場單位當 平均勞働者數는 47명이었다. 이 部門에서는 大企業이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中小零細企業과 大企業의 併存이라고 하는 二重構造는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現象으로서 프랑스에 特有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랜 資本主義發展의 過程을 거친 오늘날에 있어서도 프랑스에서 中小企業이 大企業의 存在를 가릴 만큼 광범하게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의 産業統計에 의하면 섬유工業部門에서는 從業員 50名이하의 企業이 70%를 차지하고 製鐵部門에서도 從業員 200名 미만의 企業이 24.4%를 차지하고 있

<表 1> 프랑스의 産業經營單位の 構造(1962年)

	그룹 1 (食品, 金屬, 섬유)	그룹 2 (鑛山, 化學, 製紙)	그룹 3 (機械, 自動車, 鐵鋼)	合 計
總勞働者의 比率(%)	51.9	15.4	28.1	100.0
總工場數의 比率(%)	79.5	6.2	12.3	100.0
工場單位當平均勞働者數	7	26	47	11
總勞働者에서 諸工場이 차지하는 比率(%)				
1,000名 이상	4	15	42	17
500~999名	7	15	11	10
100~499名	28	33	24	27
10~99名	31	27	18	27
1~9名	29	10	5	19
合 計	100	100	100	100

同一地區에서 두개이상의 工場을 가질 경우에는 한 工場보다 클 수도 있다. Charles P. Kindleberger, *Economic Growth in France and Britain 1851~1950*, N.Y., 1964, p.165.

(5) Maurice Levy-Leboyer, "Innovation and Business Strategies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France," in *Enterprise and Entrepreneurs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France*, ed., by Edward C. Carter II, Robert Forster and Joseph N. Mood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 89

(6) *Ibid.*, p. 101.

〈表 2〉 프랑스企業의 雇傭規模(1,000名)

部 門 年	工業・輸送・商業(男子)						工 業(男女)			
	1851	1866	1881	1896	1906	1921	1866	1896	1906	1921
雇 傭 主 (自營業者 포함)	1,670	1,730	1,665	1,535	1,790	1,485	1,450	1,350	1,760	1,425
從 業 員	2,110	2,495	2,715	3,820	4,000	5,210	2,275	2,915	3,010	3,945
1 經 營 當 平 均 從 業 員 數	2.26	2.44	2.63	3.51	3.20	4.50	2.57	3.16	2.71	3.77

있으며 프랑스工業을全體로 본다면 從業員總數의 55%가 從業員 100名이하의 企業에 고용되고 있었다.<sup>(7)</sup>

이와 같은 中小零細企業의 광범한 存在는 프랑스 資本主義가 점진적으로 발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資本主義는 급격한 原始的 資本蓄積過程을 거치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小商品生産者의 확고한 社會經濟的 基盤 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러한 過程에서 中小零細企業은 광범하게 存續하였다. 〈表 2〉<sup>(8)</sup>는 프랑스 企業의 고용규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 産業革命이 進展된 19世紀中葉에 工業, 輸送 및 商業部門에서는 自營業主를 포함한 고용주數는 약 170만명으로서 單位經營當 平均從業員數는 2名餘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서 1921년에는 고용주수는 약 150만명으로 감소하고 平均從業員數는 4명여로 증가하였으나 그동안의 고용규모의 변화는 매우 점진적이었으며 또한 큰 것도 아니었다. 특히 工業部門만을 보면 더욱 그러하였다.

小規模經營은 프랑스 産業革命의 過程에서 광범하게 存續하였다. 특히 오랜 傳統을 가진 섬유工業에서는 그러하였다. 프랑스의 傳統工業으로 리용(Lyons)을 중심으로 전개된 絹工業은 19世紀 中葉에는 몇몇 大工場企業도 나타나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家內工業의 小經營이었다. 亞麻工業에서도 19世紀 中葉에는 리일(Lille), 투르코앙(Tourcoing), 그리고 리슈(Lisieux) 등의 諸都市에는 몇몇 大工場企業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農村의 副業的 手工業生産者에 의해서 生産되고 있었다. 루베(Roubaix)를 중심으로 成長한 毛織物工業에서도 일부에서 大工場이 나타났으나 小經營이 一般的이었다.<sup>(9)</sup>

한편 絹工業에서는 대규모 工場企業이 일찍부터 나타나고 成長하였다. 그러나 그 경우도 그 樣相은 絹工業地域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絹工業이 일찍부터 발달한 노르망디 地方에

(7) 遠藤輝明, 「フランスにおける企業經營の歴史的特質」, 井上隆一郎・伊澤久昭共編, 『フランス・イタリアの政府と企業』(世界の企業シリーズ, 比較企業體制 3), 1975, p. 107.

(8) Levy-Leboyer, *op. cit.*, p. 90.

(9) O.W. Henders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Continent: Germany, France, Russia 1800~1914*, London, 1961, pp. 102-5, 164-4; J.H. Clapham,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and Germany 1815~1914*,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p. 249-56 참조.

서는 루앙(Rouen)市 周邊의 農村을 중심으로 國內需要를 충족하기 위해서 大衆의 綿製品을 생산하는 家內工業의 小經營이 成長하였다. 第1帝政期の 大陸封鎖 體制下에서 英國의 競争으로부터 保護되어 綿工業이 成長하는 過程에서 노르망디의 綿紡績部門에서는 점차적으로 工場制가 展開되고 1860년에 이 地方의 최대의 紡績工場(La Foude)은 600~700명의 紡績工을 고용하고 있었다.<sup>(10)</sup> 그러나 평균적인 노르망디 綿紡績工場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것이었으며 綿織部門에서는 家內工業의 小經營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해서 대규모의 綿工業이 급속하게 成長한 地方은 알사스(Alsace)였다. 알사스地方에서는 원래 주로 英國으로부터 綿布를 輸入하여 捺染하고 輸出하는 捺染業(printing) 중심의 綿工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大陸封鎖體制에 의해서 捺染用 綿布輸入이 困難해지게 되자 이 地方의 綿工業者들은 직접 綿織物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들은 捺染業과 輸出業에서 축적한 資本과 스위스와 파리로부터의 金融의 支援을 기반으로 機械制紡績工場을 設立하고 더 나아가 同一資本下에 紡績, 紡織 및 捺染의 諸工程을 통합한 대규모工場을 建設하였다. 이렇게 해서 물루즈(Mulhouse)를 중심으로 한 알사스地方에서는 輸出用 綿織物工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 속에서 대규모工場이 成長하였다. 예를 들어 19世紀 中葉에 물루즈의 돌프스 미그(Dollfus-Mieg)工場은 紡績·紡織 및 捺染·漂白의 全工程을 統合하여 2,500名の 勞動者를 고용하고 1,300만프랑의 賣上高를 올리는 大企業으로 成長하였다.<sup>(11)</sup> 그것은 例外的인 규모였지만 알사스地方의 綿工業에서는 近代의 工場企業이 전반적으로 설립되고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한편 새로운 綿工業 중심지인 노트(Nords)地方에서도 工場制가 전개되었다. 企業規模는 대규모工場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규모였으며 紡織部門에서는 家內工業의 小經營이 일반적이었다.<sup>(12)</sup>

冶金 및 機械工業部門에서도 19世紀初에는 다수의 手工業의 小經營이 鑛山 및 森林地帶에 散在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프랑쉬 콩테(Franche-Comté)地方에서는 1基의 용광로를 갖춘 40개의 鐵工所가 있었으며 그들 企業은 資本이 작고 勞動者도 數名을 넘지 않았다.<sup>(13)</sup> 大企業은 거의 없었고 르 크르조(Le Crusot, 1781년 設立) 鐵工場은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冶金工業部門에서는 코크스熔鑛爐가 보급되는 1840年代 이후 그리고 퍼들製鋼法이 보급되는 1850年代와, 이어서 베세머製鋼法과 지멘스·마르탱 平爐製鋼法이 도입되는 1860

(10) Claude Fohle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Fra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ume VI, *The Industrial Economies: Capital, Labour and Enterprise*, Part I, ed., by Peter Mathias and M.M. Post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 361.

(11) *Ibid.*, p. 360.

(12) Henderson, *op. cit.*, pp. 101-2, 160-2; Clapham, *op. cit.*, pp. 245-8 참조.

(13) Fohlen, *op. cit.*, p. 362.

年代에 들어서 大企業이 成長하였다. 冶金工業部門에서 大企業이 形成되는 경우 특징적인 현상은 어느 한 地方에서 小規模로 分散되어 있는 企業群을 併합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샤페용-코망트리會社(Compagnie de Chatillon-Commentry)는 1845년에 샤페용네(Chaillonnais)와 부르본네(Bourbonnais)와의 合併에 의해서 形成되었다. 이 會社는 資本金 2,000만프랑으로서 37基의 용광로와 56개의 鐵工所를 統合하고 그외에 13基의 용광로와 26개의 小鐵工所를 賃借하였으며 1,300명의 勞動者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 會社는 19世紀末에는 4,000만프랑의 賣上高를 올리고 炭鑛까지 所有한 大企業으로 成長하였다. 또한 다른 會社(Compagnie de la Marine et des Chemins de Fer)는 1854년에 로아르(Loire)地方의 小鐵鋼工場들의 併합에 의해서 形成되었으며 19世紀末에는 大冶金企業이 되었다.<sup>(14)</sup> 한편 1836년에 슈네데르家(Schneiders)에 의해서 引受된 후 급성장한 르 그르조鐵工場은 1870년에는 1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熔鑛爐 15基, 코크스釜 160基, 攪拌爐 130基, 壓延機 41臺, 蒸氣槌 30개, 衝風機關 7개 등의 諸設備가 85臺의 증기기관에 의해서 가동되는 大企業으로 成長하였다.<sup>(15)</sup> 이 외에도 大冶金企業으로는 썸 페띠엔느(St. Etienne)의 뽀앵고테(Petin Gaudet)와 테르노르(Terre Noire)會社, 에양즈(Hayange)의 스티링겐-웬델(Stieringen-Wendel)會社, 알사스의 디트리히(Dietrich)會社, 中部地方의 푸르상보(Fourchambault)會社 등이 있었다.<sup>(16)</sup> 第2帝政末期에 10大鐵鋼企業은 프랑스 總鐵鋼生産의 55%를 차지하였다.<sup>(17)</sup> 炭鑛部門에서도 大企業이 成長하였다. 앙시앙레짐 時代부터 있던 앙쟁(Anzin) 炭鑛會社는 資本金이 1840년에는 5,000만프랑에 그리고 19世紀末에는 135백만프랑에 달하였다.<sup>(18)</sup>

한편 19世紀 中葉 이후 新工業部門에서도 大企業이 成長하였다. 化學工業에서는 1665년에 유리製造 特權대뉴팩추어로 設立되어 1806년에 소다工場을 買收하여 발전의 계기를 잡은 생 고뱅(Saint-Gobain)을 비롯하여 쿨만(Kuhlmann) 및 페시네(Péchiney) 등 諸企業이 1850~60年代에 새로운 發展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특히 19世紀 末葉에는 自動車企業이 뒤를 이어 設立되었다. 프쥬(Peugeot)會社는 1889년에 그리고 루노(Renault)會社는 1898년에 각각 設立되어 프랑스로 하여금 自動車産業에서 先驅的인 나라로 만들었다.<sup>(19)</sup>

(14) Ibid., p. 362.

(15) Claude Fohle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rance 1700~1914," in *The Fontana Economic History of Europe: The Emergence of Industrial Societies*, Part I, ed. by Carlo M. Cipolla, Glasgow, 1973.

(16) Clapham, *op. cit.*, p. 237.

(17) Fohle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France," in Mathias and Postan, ed., *op. cit.*, pp. 355-6, 362-3.

(18) François Caron,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Fra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p. 169.

(19) 原輝史編, 『フランス經營史』, 1980, p. 20; 米川伸一編, 『經營史』, 1981, p. 48 참조.

19世紀 中葉에는 交通, 金融 및 流通部門에서도 大企業이 設立되고 成長하였다. 우선 交通部門에서 두드러진 것은 鐵道會社의 設立이었다. 1845년에 로프쉴드(James de Rothschild)는 資本金 2억프랑으로 파리—노르間的 北部鐵道(Compagnie du Chemin de Fer du Nord)를 設立하고 1857년에 그는 달라보(Tallabot)를 援助하여 資本金 4억프랑으로 파리—리옹—마르세이유間的 PLM鐵道會社(Compagnie des Chemins de Fer de Paris à Lyon et à la Méditerranée)를 設立하였다. 또한 페러르 兄弟(Les Péreires)는 파리—알사스間的 東部鐵道會社, 파리—노르망디間的 西部鐵道會社, 마르세이유地方의 南部鐵道會社를 設立하였다. 이렇게 해서 50年代에는 파리를 中心으로하는 放射線狀의 幹線鐵道網이 건설되었다.<sup>(20)</sup>

金融部門에서는 무엇보다도 1852년에 케레르 兄弟에 의해서 設立된 크레디 모빌리에(Crédit Mobilier)를 들 수 있다. 產業金融을 目的으로 나폴레옹 3世의 支援助으로 世界 최초의 投資銀行으로 設立된 크레디 모빌리에에는 6,000만프랑의 資本金으로 6억프랑까지 債券을 발행할 수있는 特權을 획득하고 1867년에 파산할 때까지의 15年동안 產業金融을 하였다. 뒤 이어 1860年代에는 預金銀行이 設立되었다. 代表的인 것으로는 1863년에 設立된 크레디 리네(Crédit Lyonnais)와 1864년에 設立된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이었다. 특히 크레디 리요네는 地方的 銀行으로 출발하였으나 1865년에는 파리에 진출하고 全國의 規模의 銀行이 되었으며 1908년에는 支店數가 266개에 달하였다.<sup>(21)</sup> 마지막으로 流通部門에서는 1860年代에 파리에서는 다른 나라에 앞서 본 마르쉐(Bon Marché, 1863年), 프렝땅(Printemps, 1965年), 그리고 루우브르(Louvre, 1868年) 등의 百貨店이 開設되었다.<sup>(22)</sup>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大企業은 部門에 따라 時期的 變差를 가지면서 19世紀를 통해서 設立되고 成長하였다. 예를 들어 19世紀初에는 특히 알사스를 중심으로 한 綿工業에서, 19世紀 中葉에는 冶金, 石炭産業 및 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하는 工業部門과 鐵道, 金融 및 流通部門에서, 그리고 19世紀末葉에는 自動車産業에서 몇몇 大企業이 設立되고 成長하였다. 이렇게 해서 大企業은 모든 産業部門에서 나타났다. 오늘날의 프랑스의 主要企業에는 이 時期에 設立된 企業들이 많다.

그러면 大企業은 19世紀末葉의 프랑스經濟에서 어느 정도의 重要性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表 3><sup>(23)</sup>은 1881年 現在 資本金을 기준으로 한 프랑스 30大企業의 産業別 構成을 나타낸 것

(20) Fohle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France," in Mathias and Postan, ed., *op. cit.*, p. 357; 遠藤輝明, 앞의 논문, p. 133; Henderson, *op. cit.*, pp. 136-40 참조.

(21) Clapham, *op. cit.*, p. 386.

(22) 遠藤輝明, 앞의 論文, p. 134; 米川伸一編, 앞의 책, p. 48 참조.

(23) Fohle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France," in Mathias and Postan, ed., *op. cit.*, pp. 362-3에서 작성.

〈表 3〉 30大企業의 產業別 構成(1881年)

產業部門	企業數	資本金 總額(100만프랑)	總資本에서 차지하는 比率(%)
交通	9	1,450	60
石炭	5 <sup>(1)</sup>	313	14
가스	6	188	
水道	3	130	
冶金	4 <sup>(2)</sup>	93	
化學	1 <sup>(3)</sup>	80	
電氣	1		
食品	1		

註：(1) 안쟁 (Anzin) 炭鑛會社(資本金 135百萬프랑)이 포함됨.  
 (2) 최대의 鐵工場인 르 크르조는 18位임.  
 (3) 생 고뎀 (Saint-Gobain)會社(資本金 80백만프랑)

이다. 大企業은 주로 交通(鐵道)部門과 가스·水道 등 公益事業部門에 集中되고 있으며 產業部門에서는 石炭과 冶金 및 化學工業에서 大企業이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工業部門에서는 그 수와 資本이 매우 작다. 더구나 섬유工業部門의 企業은 이 表에 나타나 있지 않다. 工業部門에서는 大企業이라고 하더라도 그 數와 資本規模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대부분의 企業은 中小零細規模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06年の 統計에 의하면 勞動者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工業經營體數가 工業經營者數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71%(1926年에도 그것은 61%에 달하였다<sup>(24)</sup>)였으며 그의 經營者數는 所有主를 포함한 工業勞動者總數의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과는 달리 雇傭勞動者를 보면 工業勞動者總數의 32%는 10人이하의 經營體에, 28%는 10~100명의 經營體에, 그리고 40%는 100명 이상의 經營體에 고용되고 있었으며 平均的 規模의 經營體가 고용하는 勞動者數는 45명이었다.<sup>(25)</sup> 19世紀프랑스의 工業化過程에서 部門에 따라서는 大企業이 成長하던서도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하게 存在하였으며, 이와같은 二重構造는 프랑스企業構造上的 基本 特징으로 20世紀에도 존속하였다.<sup>(26)</sup>

## 2. 中小企業의 經濟的 基盤

프랑스에서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하게 存在하게 된 理由는 무엇인가? 資本主義의 발전과정은 일반적으로는 小商品生産者의 存立基盤이 무너지고 그들의 階層分化에 의해서 한편에서 資本主義的 大經營이 成長하고 다른 한편에서 勞動力을 商品으로 販賣하는 勞動者階級이 成長하는 과정이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過程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技術革新이 進展되고 새로운 經濟的 與件에 대응한 企業規模의 확대가 요청되는 속에서 部門에 따라서는

(24) Levy-Leboyer, *op. cit.*, p. 98.

(25) Caron, *op. cit.*, p. 164.

(26) Levy-Leboyer, *op. cit.*, pp. 128-9.



19世紀를 통해서 大企業이 成長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小商品生産者의 存立基盤은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餘他 資本主義諸國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급격한 原始的 資本蓄積=小商品生産者層의 沒落위에서의 近代의 大企業의 成長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部門에 따라서 大企業이 成長하면서도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히 存在하여 그것이 프랑스資本主義의 하나의 기본적 특질이 되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資本主義의 특질은 歷史的으로 形成된 프랑스의 社會的·文化的 및 經濟的 諸條件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그 특질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諸條件이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資本主義의 社會·文化的 條件을 뒤에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sup>(27)</sup> 다만 여기서는 프랑스에서 특징적으로 광범하게 存在하는 中小零細企業의 經濟的 조건을 고찰하기로 한다.

르보아이에는 프랑스에서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하게 存在하게 된 經濟的 조건으로 費用要因을 注目하고 있다. 즉 특히 勞動集約的 產業에서는 勞動費用의 上昇이 企業의 生産과 經營政策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sup>(28)</sup> 그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所得증대와 農業部門에서의 經濟活動의 多樣化로 말미암아 1830년대까지 存在하고 있던 過少雇傭勞動의 豫備는 고갈되었다. 1840~80년에 名目賃金은 2배가 되고 그후 그것은 계속 上昇하였다. 더구나 技術革新이 일부의 大都市에서 일어나고 地方으로 不均等하게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地域間的 賃金隔差는 컸다. 따라서 企業家は 費用의 變化(增大)에 대해서 企業을 保護할 수 있는 方法을 고안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小企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地方에 따른 賃金隔差는 賃금이 낮은 地方으로 企業을 이동하게 하여 企業의 分散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理由에서 다수의 企業이 1840년 이전에 分散되고 地方에서 再配置되었다. 1848년에는 약 120만명의 工業勞動者가 農村地域에서 居住하고 1896년에 家內工業勞動者數는 150만명이 되었다. 그러나 時代가 經過하는 과정에서 勞動과 工場의 再配置가 갖는 效率性이 낮아짐에 따라 企業家は 종전과 같은 정책을 계속 취하면서 新機械의 개발, 組織改編, 그리고 특히 從業員의 專門化에 의해서 競爭力을 높일려고 하였다.<sup>(29)</sup> 한편 새로운 技術革新은 資本으로 勞動을 代替하고 大工場을 設立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多數의 서비스業務와 小生産單位를 낳게 하였다. 예를들어 自動車會社는 組立工場이었고 필요한 部品의 大部分은 外部의 中小企業에 注文하였다. 한 部門에서 다른 部門에의 勞動의 轉換能力도 있었다. 그것은 現場에서의와 19世紀後半期에는 技術學校에서의 教育을 통해서 얻어진 熟練과 技術에 基本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1890년 이후의 工業

(27) 本稿의 V 참조.

(28) Levy-Leboyer, *op. cit.*, p. 93.

(29) *Ibid*, p. 94.

화의 進展期에도 準手工業的 工場은 成長하였다. 家內에서의 광범한 에너지 利用可能性이 織布, 衣類, 器具, 정밀기계제작部門을 뒷받침하였고, 耐久財의 設置, 修理 및 維持는 製造業과 서비스業의 中間業務를 낳았다. 이들 部門에서 中小零細企業은 확고한 기반을 가졌다.<sup>(30)</sup>

르보아이에는 小企業의 광범한 存立의 經濟的 기반으로 종래에 별로 注目되지 않았던 要素供給條件에 따른 費用要因 특히 勞動費用要因에 주목하였다. 勞動力의 供給條件은 全體로서의 人口 증가율만이 아니라 地域的 및 社會的 可動性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프랑스의 勞動力供給條件도 自然的인 人口成長率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相當한 정도로 歷史的으로 是 經濟的 및 社會的 條件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19世紀 특히 그 후반기의 프랑스에서는 人口의 低成長, 交通機關의 改善=鐵道建設 이전의 人口의 地域的 可動性의 制約, 그리고 小農經營을 基盤으로 하는 農村構造에서 오는 人口의 社會的 可動性의 制約 등이 勞動力供給을 條件지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프랑스의 社會의 구조적 특징과의 관련에서 고찰되게 될 것이다. 한편 要素供給條件으로는 資本供給條件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企業의 產業金融과 관련해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하게 존재하게 된 經濟的 조건的 하나로는 이러한 供給條件이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의 中小企業의 광범한 存立基盤으로서 종래에 특히 강조되어 온 것은 需要條件 즉 市場의 性格이었다. 프랑스에서의 富 및 所得分配의 不公平과 現在의 消費에 支出하는 所得의 比率을 低下시킴으로써 전체로서의 需要擴大가 制約되었고, 小부르조아의 儉素와 높은 貯蓄性向도 같은 方向으로 作用하였다.<sup>(31)</sup> 르보아이에는 프랑스企業의 두드러진 分散性=小規模性의 原因으로 需要面에서는 消費者가 社會的 및 地理的으로 처음부터 隔離되어 있다는 것에 의해서 說明될 수 있다고 보고 “交通費, 消費者의 習慣 그리고 아마도 높은 比率의 農村顧客이 계속된 市場分割에 기여하였다. … 企業은 分散된 市場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32)</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需要條件=市場의 性格이 中小企業에 適合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學者는 란데스였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市場은 언제나 相對的으로 國內人口(市場) 중심이었고 人口는 過去 1世紀 동안 事實上 靜態的이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4,000만

(30) *Ibid.*, pp. 97-8.

(31) Rondo E. Cameron, “Economic Growth and Stagnation in France 1815~1914,” in *The Experience of Economic Growth, Case Studies in Economic History*, ed. by Barry E. Supple, N. Y., 1963, p. 332.

(32) *Ibid.*, p. 97.

프랑스인의 소비패턴이었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그는 프랑스의 市場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sup>(33)</sup> 첫째로 적어도 프랑스人口의 중요한 두 階層인 대부분의 勞動者와 販賣餘裕가 없는 自給自足的 農民은 生活必需品 이상의 商品을 購入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즉 低廉하고 標準的 商品의 大量販賣市場이 될 수 있는 階層의 購買力이 不足하였다. 둘째로 平均的인 프랑스인은 資力에 比해서 平均적인 美國人보다 덜 購入하였다. 즉 프랑스인의 기준에서는 美國人生活의 浪費的 性格은 非道德的인 것으로서 新型車를 갖기 위해서 前年에 구입한 自動車를 팔아넘기는 美國人の 消費패턴을 프랑스인은 理解하지 못하였다. 프랑스인은 美國人보다 적게 購入할 뿐만 아니라 購入패턴이 전혀 달랐다. 즉, 프랑스인은 大量生産에 따른 標準的 商品보다 個性的 商品, 特色 있는 藝術的 商品을 選好하였다. 따라서 流行에 대해서 민감하였다. 세째로 프랑스인은 家具와 같은 準必需品를 購入하기 위해서 借金한다는 것은 異例의이었으며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割賦販賣는 普及되지 않았다. 네째로 프랑스의 小賣制度에 있어서 小商店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獨立의 象徵으로서 그리고 小부르조아가 되는 손쉬운 階梯로서 小商店를 갖는다는 것은 俸給生活을 하는 一般庶民의 理想이었다. 그들은 小商店를 가질 수 있는 날을 위해서 貯蓄하였다. 이렇게 해서 小商店(Le petite commerce)는 프랑스에 있어서의 社會的 可動性과 逆說的으로 社會的 安定의 不可缺한 메카니즘이었다. 小商店의 過度한 存在는 높은 流通費用=높은 價格을 消費者에 전가하게 되었다. 그것은 小賣商의 過度한 分散에서 오는 非能率만이 아니라 販賣過程에서 볼 수 있는 意識에 의해서도 그러하였다. 즉 프랑스의 小商店는 일종의 家族企業의 縮圖로서 限定된 賣上에서 高利潤을 추구하였다. 이들 小商店는 하루 세장의 셔츠를 팔거나 점심때에 여섯상의 食事を 팔므로써 運營되는 경우가 있었다. 消費者는 필요한 것을 購入하도록 권유되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自身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充足시키기 위해서 店舖에 가고 自身의 滿足을 위해서 가능한 限 高價를 支拂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市場創造技術은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販賣技術은 있으나 미친다이싱(merchandising)이라는 用語는 없었다. 廣告는 빈약하고 범위가 限定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市場의 性格은 大企業과 大量生産보다도 中小企業에 適合한 것이었다. 특히 量보다도 質을 그리고 大衆的 商品 보다도 個性的이고 雅趣있는 藝術的 商品을 선호하는 프랑스인의 독특한 소비패턴은 프랑스의 技術과 技術의 獨創性으로 하여금 費用을 低下시키고 大量販賣를 結果할 販賣方法의 발달보다도 質적으로 보다 좋고 藝術적으로 보다 雅趣있

(33) David S. Landes, "French Business and The Businessman: A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in *Modern France: Problems of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s*, 1952, pp. 341-2.

고 流行에 맞는 財貨의 생산에 集中하게 하였다.<sup>(34)</sup> 이러한 경향은 섬유製品이라든가 皮革製品 등 輕工業製品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自動車같은 耐久消費財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結果적으로 프랑스인의 有效需要의 相當한 부분은 大量生産工業이 아니라 手工業的 및 準手工業的 産業의 製品으로 돌려졌다.<sup>(35)</sup> 프랑스의 中小企業은 이러한 市場條件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 3. 企業의 法的 構造

프랑스企業의 構造上的 특징은 法的 側面에서 볼 때 家族企業의 性格에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歷史적으로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하게 存在해 온 프랑스에서 家族的 性格의 企業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中小規模의 企業만이 아니라 19世紀이래의 工業化過程에서 成長한 大企業에서도 家族企業의 性格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sup>(36)</sup> 오늘날의 프랑스에서도 과거의 工業化過程에서 뿌리를 내린 '200家族'이 經濟界에 有力한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第2次大戰後 戰略的인 産業部門에서는 國有化가 進展되고 混合經濟體制下에서 民間經濟部門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만큼 民間部門에서의 그들 家族의 影響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企業의 家族企業의 性格의 法的 基盤은 역사적으로는 1807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制定된 商法典에 있었다. 同法은 企業의 組織形態를 合名會社(société en nom collectif), 合資會社(société en commandite) 및 株式會社(société anonyme)의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合名會社는 모두 無限責任을 지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에 의해서 조직된 會社이며 設立이 自由롭고 同一家族의 成員이 그 構成員이 되어 완전히 家族企業에 相應한 형태의 企業組織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合名會社는 19世紀를 통해서 一般的으로 나타났으며 20世紀에 있어서는 工業, 金融 및 商業 등 諸部門에서 일반적이었다. 둘째로 合資會社는 企業의 經營에 직접 참여하고 無限責任을 지는 經營社員(acting partner)과 經營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資本을 出資하고 그에 대응한 有限責任을 지는 匿名社員(sleeping partner)으로 구성되고 設立이 自由로웠다. 合名會社에서는 現金資金의 出資와 함께 양도가능한 株

(34) Bert F. Hoselitz, "Entrepreneurship and Capital Formation in France and Britain since 1700," in *Readings i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ed., by Malcolm E. Falkus,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110; Cameron, "Economic Growth and Stagnation in France," in *Supple* (ed.), *op. cit.*, pp.333-4.

(35) Landes, "French Business and Businessman," in Earle (ed.), *op. cit.*, pp.344-5.

(36) 폴렌은 프랑스企業의 특징으로서 그의 家族企業의 性格과 함께 그의 小規模性 및 銀行과의 관계에서의 獨立性을 들고 있다. Fohle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rance." Cipolla ed., *op. cit.*, pp.34-5.

式的發行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組織은 家族의 金融能力을 상회하는 보다 큰 규모의 企業을 設立하는 경우에 利用되었다. 세계로 株式會社는 株式發行을 통해서 資本을 動員하는 企業組織으로서 近代의 大企業의 組織으로 오늘날 資本主義的 企業組織으로서 가장 一般的인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의 設立은 1867년에 自由化될 때까지 國家에 의해서 統制되었다. 즉 株式會社의 設立에는 國家機關(Conseil d'Etat)의 特許가 필요하였으나 政府의 許可基準이 매우 까다로와 特許의 획득이 곤란하였으며 따라서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設立되었다.<sup>(37)</sup> 이와같은 商法典의 規定에 따라 프랑스 企業의 組織形態는 주로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였다. 즉 가능하면 家族의 資金으로 合名會社를 設立하고 家族의 資金만으로는 不足한 경우 合資會社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法的條件에서 프랑스 企業의 家族企業의 性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19世紀의 프랑스에서는 合名會社組織의 企業이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 1847년에 設立된 2,600개 會社의 構成을 보면 1,952社(75%)가 合名會社, 647會社(25%)가 合資會社, 그리고 14社가 株式會社였다. 또한 1848~67년에 設立된 67,500社의 構成을 보면 52,800社(78%)가 合名會社, 14,400社(21%)가 合資會社 그리고 307社가 株式會社였다.<sup>(38)</sup> 이들 諸組織間의 企業資本을 比較할 수 있는 資料는 없으나 企業數로 볼 때에는 合名會社가 가장 보편적으로 存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東部の 한 紡績會社(Méquillet-Noblot)는 1802년에 3名의 家族社員(父, 子, 조카)에 의해서 各各 15,000프랑식 出資되어 設立된 후 여러 차례의 解散·再組織過程을 거쳐서 1901년에는 300만프랑의 資本金을 가지게 되었다. 몰루즈의 한 綿工業會社(Thierry-Mieg et Cie)와 같은 보다 큰 會社도 合名會社組織을 취하고 있었다.<sup>(39)</sup> 小規模企業은 모두가 個人 또는 合名會社組織이었다.

大企業은 대부분 合資會社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가장 近代的인 冶金企業의 하나인 후르삼보(Fourchambault)會社는 1819년에 보아그(Louis Boigues)에 의해서 設立되었다. 設立 資本金 30만프랑의 折半은 보아그 自身이, 그리고 나머지 折半은 2名의 파아트너가 各各 出資하였으며 1821년에는 50만프랑이 추가되어 資本金은 80만프랑이 되었다. 그후 보아그는 다른 두 사람의 出資分을 상환하여 同會社의 唯一한 出資者가 되었다. 同會社는 株式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時點에서 그것이 合資會社인지 아니면 合名會社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株式資本을 가진 合名會社로서는 안쟁(Anzin)炭鑛會社와 생고뱅(Saint-Gobain)

(37) Fohle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France," in Mathias and Postan, ed., *op. cit.*, pp. 532-3.

(38) *Ibid.*, p. 353; Fohle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rance," Cipolla, ed., *op. cit.*, p. 34.

(39) Fohle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France," in Mathias and Postan, ed., *op. cit.*, pp. 353-4.

유리會社와 같은 企業들이 있었다. 資本이 필요한 新事業의 경우도 合資會社組織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르 크르조(Le Crusot)會社는 1836년에 파리의 오프방끄(Haute-Banque) 經營者인 셀리에르家(Seilliere), 슈네데르 兄弟 그리고 그들 중 한사람의 義父이며 후르삼보會社의 所有者인 보아그(Boigues)에 의해서 引受되었다. 이렇게 해서 同會社는 이들 4명과 1명의 地方製鐵業者에 의해서 株式資本을 가진 合資會社로서 設立되었다. 資本金 400만프랑은 각각 액면 5만프랑의 株式 80株로 분할되어 그중 50株가 設立者를 위해서 留保되었다. 르 크루조會社의 이와 같은 法的 構造는 20世紀 中葉까지 계속되었다. 같은 예는 로렌(Lorraine)의 웬델家와 루르(Ruhr)의 크룹(Krupp)家와 같은 大製鐵業者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다. 르 크르조會社의 資本金은 1849년에는 2,250만프랑으로 그리고 웬델會社의 資本金은 1825년의 400만프랑에서 1872년에는 3,000만프랑으로 증가하였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섬유工業에서의 合資會社의 資本 규모는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19世紀 中葉에 大 섬유企業의 資本金규모는 100~200만프랑이었다.<sup>(40)</sup> 合名會社의 資本調達能力을 넘는 大資本이 필요한 경우의 일반적인 企業組織은 合資會社形態를 취하였으며 그것이 家族企業의 性格을 뒷받침하는 制度的 기반이 되었다. 왜냐하면 合資會社組織은 個人 및 家族支配體制를 바꾸지 않고 外部資本을 도입하는 方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대의 冶金·機械企業인 르 크르조는 그 株式이 활발히 交換되었으나 合資會社로 남았으며 經營社員은 계속 슈네데르家에서 나왔다. 웬델(Wendel), 自動車의 푸쵸(Peugeot), 合金의 홀저(Holtzer) 등 大企業들도 모두 家族企業이었다.<sup>(41)</sup>

合資會社는 보다 큰 資本이 필요할 경우 株式會社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株式會社組織의 企業設立은 政府에 의해서 엄격하게 억제되었다. 그러한 속에서도 株式會社의 設立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政府에 의한 제한이 있었던 1815~67년에 設立된 株式會社는 635社였다. 그 業種別 構成을 보면 保險會社 145社(23%, 그 대부분이 海上保險會社), 銀行 26社(4%), 運送會社 194社(31%, 그중 66社는 鐵道會社), 産業會社 135社(21%), 그리고 公共用役 및 農業·植民會社 등의 非産業會社 135社(21%)였다. 産業會社의 내용을 보면 冶金·鑛山會社 60개社(9%), 化學會社(都市가스, 照明會社 포함) 58社(8%), 섬유會社 17社(3%)였다.<sup>(42)</sup> 이렇게 보면 株式會社는 運送 및 保險業에서 가장 많이 設立되었다. 특히 資本主義의 大株式會社는 運送業部門에서 나타났다. 1820년대에는 運河會社가 그리고 1840년 이후에는 鐵道會社가 設立되었다. 예를 들어 1845년에 設立된 北部鐵道會社의 資本金은 2억프랑

(40) *Ibid.*, p. 354.

(41) Landes, "French Business and the Businessman," *op. cit.*, p. 337.

(42) Fohle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France," in Mathias and Postan, ed., *op. cit.*, pp. 355-6.

으로서 액면 500프랑의 株式이 40만株 발행되었으며, 1857년에 設立된 PLM鐵道會社의 資本金은 4억프랑이었다. 그러나 19世紀 前半期の 株式會社는 대부분이 資本金 1,000만프랑 이하의 小規模企業으로서 株式도 高額面으로 少數發行되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合資會社와 같은 形態로서 限定된 그룹 즉 家族이 支配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産業企業에는 株式會社組織이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 주로 冶金·鑛山業部門에서 나타났다. 1850년이후 冶金業에서의 株式會社는 새로운 企業의 創設이 아니라 既存企業의 合併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예를들어 드내인—안쟁鐵工場(Forges de Denain-Anzin)은 드내인과 안쟁의 鐵工場들의 合併에 의해서 設立된 株式會社였다. 가장 典型的인 例는 프랑쉬 콩페(Franche-Comté)의 鐵工場들의 合併으로 이루어진 鐵會社(Société des Hauts-Fourneaux, Foundries et Forges de Franche-Comté)로서 1,200만프랑의 資本金은 24,000株의 株式으로 構成되고 있었다. 그러나 섬유工業이라든가 化學工業에서는 株式會社의 확대는 없었다.<sup>(43)</sup>

株式會社設立의 自由는 1867년의 法律에 의해서 實現되었다. 이에 앞서 1863년의 法律은 資本金이 2,000만프랑을 초과하지 않은 限에서의 株式會社設立을 自由化하고 任員의 責任도 出資金의 限度內에서 지도록 하였다. 1867년의 法律은 株式會社設立을 完全 自由化하는 한편 管理準則을 賦課하여, 會社로 하여금 管理委員會(administrative council)을 두고 年次總會를 개최하고 規則적으로 官選된(指定된) 委員에 의해서 會計를 확인하도록 하며 年々の 留保金を 備蓄하도록 하였다. 自由化이후의 株式會社設立은 증가하였으며 그와 함께 既存企業의 株式會社組織에의 轉換도 이루어졌다. 既存企業의 組織轉換의 典型的인 例는 化學工業에서는 쿨만(Kuhlmann) 會社와 冶金工業에서는 알바드製鐵會社(Compagnie des Forges d'Alleverd)에서 볼 수 있다. 前者는 1825년에 合資會社로 設立되었다가 1854년에는 株式을 가진 合資會社로 그리고 1870년에는 株式會社가 되었으며 後者는 처음에는 家族企業으로 출발하여 1842년에는 株式을 가진 合資會社가 되고 1906년에는 株式會社가 되었다.<sup>(44)</sup>

株式會社組織의 大企業의 출현은 企業의 性格에도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大衆資本이 動員됨으로써 所有와 經營이 分離, 管理層에서의 權限의 分割, 政策決定 및 執行의 문제등이 새로이 제기되게 되고 그것은 合名·合資會社組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所有者經營體制 따라서 家族企業의 性格을 變質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이 設立되었다고 해서 所有와 經營의 分離 그리고 專門經營者에의 管理責任(權限)의 이양이 進전되고 企業의 家族企業의 性格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에서는 家族企業의 性格은 두드러지게

(43) *Ibid.*, p. 357.

(44) *Ibid.*, p. 358.

나타나고 있었다.

### III. 企業의 産業金融과 經營管理

#### 1. 企業의 産業金融

##### (1) 自己金融

家族企業을 전형으로 하는 프랑스企業은 어떠한 方式으로 資本을 調達하였는가? 企業의 産業金融의 方式에는 家族 또는 親知의 資金, 利潤의 留保 그리고 銀行으로부터의 借入이라고 하는 세가지가 있었다.

家族企業의 創業資本이 家族資金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의 企業이 家族資金을 기초로 해서 設立되었다. 家族企業은 개인 또는 家族의 資金을 가지고 設立되고 利潤의 留保를 통해서 확장되면서 代를 이으면서 相續되었다. 企業에서의 家族의 계속성은 相續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그 두드러진 예를 우리는 르 꼬르조 會社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슈네데르兄弟(Adolphe and Eugène Schneider)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1836년)을 한 르 꼬르조 會社는 父(Adolphe)의 死亡後 1845년부터 弟(Eugène)에 의해서 단독으로 운영되고 그의 死亡(1875년)後 1898년까지 아들(Henri)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1942년까지 孫子(Eugène II)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1960년까지 曾孫子(Charles)에 의해서 경영되었다.<sup>(45)</sup> 이러한 장기의 연속성은 예외적인 것이지만, 企業의 연속성은 일반적으로 長期間에 걸친 것이었다. 企業經營의 後에는 대개 家族相續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家族은 그들이 設立한 企業의 支配權을 계속 장악하였다. 예를 들어 19世紀 後半期の 생테니스(Saint-Denis)에서는 496개 既存企業 중에서 새로운 會社名을 가지게 된 것은 134개 會社였다. 그것은 總企業數의 27%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1世代當으로는 약 12%(破産한 企業을 포함하면 15%)에 불과하였다. 企業順位の 變化도 별로 없었다. 大企業은 일단 확립되면, 主導의 地位에 있었으며 社會的 觀點에서 보더라도 同一人의 支配下에 있었다. 노르망디(Normandy)의 경우를 보면 3개의 主要染整企業은 1855년에 平均 70年の 歷史를 가지고 있었으며 1900년경에 릴본(Lillebonne)地方的 4개의 主要紡績企業은 85年の 歷史를 가지고 있었다. 類似한 예는 餘他地方과 餘他部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오래된 企業은 언제나 일찍 출발하였다는 利益을 누렸으며 不況期에는 비교적 새로운 下位企業에 의해서 보호되었다.<sup>(46)</sup> 企業의 安定性은 더 나아가 전체로서의 프랑스經濟의 安定性의 기반이 되었

(45) Fohlen, *op. cit.*, p. 364.

(46) Levy-Leboyer, *op. cit.*, p. 103.



다. 19世紀를 통해서 프랑스는 周期的으로 英國과 美國을 휩쓴 심각한 不況에 휩싸이지 않았다.

家族資金의 기원은 다양하였다. 貴族의 경우 그들의 所領과의 關係에서 製鐵 및 石炭産業部門에서 家族企業을 設立하였다. 그것은 그들 所領에는 製鐵에 필요한 鐵鑛石이라든가 森林 및 石炭資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을 所有하고 있는 貴族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産業企業을 設立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製鐵業에서 알사스의 디트리슈家(Les Dietrich), 로텐의 드 웬델(De Wendel)家, 도우퍼네(Dauphiné)地方的 바랄家(Les Baral) 등이 있으며, 石炭産業에서는 안쟁(Anzin)社의 크로와 公爵(Duc de Croy)이라든가 아니슈(Aniche)社의 트레스넬男爵(Marquis de Traisnel) 등이 있었다. 또한 1702년에 설립된 特權매뉴팩추어로서 유럽最高의 유리製造技術을 자랑한 생 고방(Saint-Gobain)社는 그 株主에 많은 貴族들이 있었다.<sup>(47)</sup>

그러나 프랑스의 家族企業資金의 源泉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小商品生産者와 商人의 蓄積資金이었다. 中小零細企業이 광범하게 존재한 프랑스에서 小商品生産者의 自己資金이 중요하였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小商品生産者를 社會的 基盤으로 해서 노르망디地方的 綿工業에서는 近代的 企業家가 꾸준히 成長하였다. 그들은 루앙(Rouen)을 중심으로한 農村을 基盤으로 家族資本으로 小商品生産을 營爲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를 도입하면서 近代的 綿工業企業家로 成長하여 ‘섬유부르조아지’라고 불리는 綿工業資本家를 形成하게 되었다. 1847년 현재 프랑스 總生産能力의 34%를 차지하게 된 노르망디 綿工業에는 300개 紡織工場이 있었으며 한 工場當 平均 紡錘數는 4,400錘였다. 물론 노르망디에서도 企業規模의 차이는 컸지만 平均적으로 그것은 알사스 綿紡織工場의 15,000錘에 비해서 보면 中小企業이었다.<sup>(48)</sup> 宗教적으로는 凱톨릭教徒인 노르망디의 綿工業企業家들은 小商品生産者로부터 自己資本으로 成長한 産業資本家로서 프랑스企業經營者의 原型으로 現代까지 継承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近代的 大企業에까지 成長한 家族資金의 기원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商人資本이었다. 1840년 이전의 프랑스 全企業家의 약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商人出身이었다고 推測되고 있다.<sup>(49)</sup> 레비 르보아이에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볼 때 프랑스의 近代企業家は 小商品生産者 보다도 商人製造業者(merchant-manufacturer)에서 많이 배출되었

(47) 原輝史編, 앞의 책, p. 14.

(48) Levy-Leboyer, *op. cit.*, p. 103.

(49) 原輝史編, 앞의 책, p. 13.

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0)</sup> 商人은 先貨商人으로서의 活動을 통해서 生産技術을 熟知하고 또한 販賣市場을 支配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資金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家族資本의 典型을 우리는 알사스 綿工業企業에서 볼 수 있다. 알사스 綿工業企業家は 綿布를 輸入하여 捺染하고 再輸出하는 商人製造業者로 시작하여 王政復古 이후에는 紡績 및 紡織部門까지 統合한 ‘産業王國’을 건설하였다. 스위스와 家族的 관계가 깊고 宗教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인 그들은 家族資本으로 企業을 設立·擴大하면서 運營資金은 특히 스위스의 銀行으로부터 融資을 받았다. 輸出用 高級品生産을 추진한 알사스의 綿工業資本家は 自由貿易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企業家活動을 추구하였다. 冶金工業에서도 商人資本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鐵商人은 冶金企業의 設立·引受·擴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近代的 冶金工場의 하나였던 후르삼보(Fourchambault)社는 1819년에 파리의 오프방끄의 商業信用을 背景으로 폭넓게 鐵材去來를 하고 있던 鐵商人 보아그(Louis Boigues)가 다른 2명의 鐵商人(Labbé 및 Paillot)과 製鐵技師 듀포(Achille Dufaüd)의 참가를 얻어 資本金 30만프랑의 合資組織으로 設立한 會社로서 1821년에는 資本金 80만프랑이 되었으나 그 후 보아그는 出資商人들에게 鐵材를 줌으로써 그들의 出資分을 상환하여 유일한 社主가 되었다. 한편 르 그르조會社は 1836년에 파리의 오프방끄인 세이에르(Seillière)銀行, 同銀行의 帳簿係였던 슈네테르兄弟 그리고 그들 兄弟중의 하나의 장인이며 후르삼보會社의 社主인 보아그에 의해서 引受되고 그후 동생인 유진 슈네테르에 의해서 단독으로 운영되어 家族企業으로 계승되었다.<sup>(51)</sup> 王政復古에서 七月王政期를 통해서 商人資本은 파리의 오프방끄의 支援을 받으면서 産業企業의 設立·擴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家族資本과 少數人그룹의 資本을 가지고 企業을 設立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한 創業資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필요한 資本규모는 産業部門에 따라 그리고 時期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19世紀初에 企業設立에 필요한 資本金규모는 鐵工所의 경우에는 25,000~35,000프랑, 木炭鎔鑪의 경우 5만~10만프랑, 코크스鎔鑪의 경우는 그의 2배, 壓延工場의 경우에는 1만~2만프랑이었으며 統合鐵工場의 경우에는 6만~60만프랑이었다. 필요자본규모는 뒤이은 技術進歩와 함께 증대하였다. 1840년경에 英國型鐵工場의 資本規模는 적어도 120만프랑에 달하였으며 技術進歩에 따라 投資資本규모는 커졌다. 한편 섬유工業에서는 필요한 資本규모는 훨씬 작았다. 1802년에 프랑스東部에서 設立된 한 紡績工場의 資本金은 54,000프랑, 그리고 1833년의 리일(Lille)에서의 그것은 24,000프랑이었다.<sup>(52)</sup>

(50) Levy-Leboyer, *op. cit.*, p. 102.

(51) Fohlen, *op. cit.*, p. 354.

(52) *Ibid.*, p. 365.

産業革命初期의 技術은 처음부터 大資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입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企業의 設立資本規模는 家族資本 또는 少數人그룹의 資本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家族資本으로 設立된 企業은 利潤의 社內留保를 통해서 새로운 機械를 도입한다든가 다른 生産部門을 追加하면서 규모를 확대하였다. 家族企業의 産業金融은 典型的으로 留保된 利潤의 再投資라고하는 ‘自己金融’(auto-financement)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한편 르 꼬르 조會社와 같이 수백만프랑의 資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家族資本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다른 家族資本을 같이 動員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設立후의 企業의 財務管理는 언제나 留保된 利潤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利潤의 再投資’ = ‘自己金融’은 적어도 技術革新의 費用이 그리 크지 않았던 工業化初期에는 企業成長을 이룩하는 典型的 手段이었다. 보우비에(Jean Bouvi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産業發展은 그 초기에는 企業의 設立과 擴張을 위한 金融을 상당한 정도까지 스스로 할 수 있었다. 産業이 産業을 낳고 産業貯蓄(自己金融)이 投資를 낳았다. 그것은 1820년에서 1850년에 이르는 프랑스 産業發展의 第1局面에서의 基本的 過程이었다.”<sup>(53)</sup> 뿐만 아니라 그것은 1850년 이후에도 프랑스의 産業金融을 특징지었다. 19世紀를 통해서 冶金業에서도 自己金融은 일반적 관행이 되었고 그것은 企業확장의 기초가 되었다. 利潤은 그 自體를 目的으로 해서가 아니라 再投資를 위해서 추구되었다. 自己金融은 高利潤率을 전제로 하였다. 冶金工業의 경우 企業들은 일반적으로 高利潤率을 실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54)</sup> 그러한 條件에서 企業은 産業金融을 주로 自己金融에 의존할 수 있었다.

## (2) 銀行의 産業金融

그러나 自己金融을 통한 資本調達에는 限界가 있었다. 技術革新이 進展되고 企業擴張이 요청되는 속에서 自己金融力을 넘는 大資本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은 銀行으로부터의 借入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産業金融에서 銀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銀行이 企業의 産業金融에서 한 役割은 19世紀 前半期에는 거의 없었고 그 後半期에도 相對的으로 두드러진 것이 되지 못하였다. 프랑스의 産業金融이 주로 自己金融에 의존하게 된 데에는 그것을 有效하게 할 수 있게 한 經濟的·技術的 條件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한편 産業企業家の 銀行에 대한 경제심·不信과 銀行業務의 性格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즉 産業企業으로서의 銀行借入을 할 경우 金融的으로 銀行의 支配를 받

(53) *Ibid.*, p. 366.

(54) *Ibid.*, pp. 366-8

고 企業의 自立性·獨立性を 喪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家族企業의 경우 企業은 '家産'인 만큼 그것을 安全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으며 外部資本의 도입에 의해서 그것이 不安해지거나 獨立性を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回避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銀行은 企業에의 長期金融을 기피하였다. 이러한 背景에서 産業企業과 銀行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兩者의 관계가 완전히 격리된 것은 아니며 19世紀 중엽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復古王政과 七月王政時代に 있어서의 프랑스金融界를 지배한 것은 파리의 오프 방끄(Haute Banque)였다. 오프 방끄는 로트실드(Rothschild), 엔느(Hene), 오멩제르(Hottinger), 말레(Mallet), 뇌플리스(Neuflize), 세이에르(Seillière), 구엥(Gouin) 등 20數家の 商人銀行家에 의해서 각각 운영된 個人銀行들이었다. 이들 商人銀行家들은 원래 國內外商品을 광범히 去來하는 總合商社的 商業活動을 하면서 축적자본으로 銀行業務도 수행하고 그의 業務의 중심을 점차적으로 후자로 이행하여 有力한 銀行家가 되었다. 예를 들어 로트실드는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및 런던에서도 金融業務를 수행한 國際的 大金融業者로서 1848년에 파리에에서의 그의 銀行資產은 여타 오프 방끄의 全資產보다도 컸다. 이들 오프 방끄는 家族企業이고 預金도 한정된 범위에서 거액예금만 받아 드리고 貸付도 처음에는 大商人에 대한 短期貸付에 한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프 방끄는 王政復古이후에는 주로 公債去來에 종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利益을 올렸다. 復古王政은 처음부터 나폴레옹戰爭에 따르는 16억프랑에 달하는 賠償金을 포함하여 豫算의 2배나 되는 負債를 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決濟하기 위해서 國債를 발행하게 되었다. 그들 오프 방끄는 總 8억 1400만프랑에 달하는 5分利公債를 액면의 55% 전후의 割引率로 引受하여 證券市場에서는 80%의 時勢로 賣却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프랑스 최대의 貨幣資本家로 成長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地主, 商人, 金融業者의 退藏貨幣가 證券市場으로 들어가게 되고 公債所有者가 13만명에 이르렀다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큰 利子生活者層이 創出되었다.<sup>(55)</sup> 한편 오프 방끄는 中央銀行으로서의 프랑스銀行이 設立될 때부터 그의 有力한 支配者였다. 프랑스銀行이 發行한 銀行券은 500프랑 이상의 高額券으로서 그 유통은 限定되어 있었고 手票流通도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의 商去來에는 환어음이 많이 이용되었다. 여기에 프랑스銀行의 어음割引業務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銀行은 오프 방끄의 보증이 있는 어음만 割引하였다. 따라서 오프 방끄는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貨幣供給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銀行과

(55) 遠藤輝明, 앞의 논문, p. 123.

오프 방꼬에 의한 金融寡頭體制가 成立되었으며 그 構成員들이 프랑스의 비즈니스界에서 가장 有力한 實力者가 되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엘리트의 하나의 指標로 볼 수 있는 프랑스銀行의 理事會는 오랫동안 商人 및 商人銀行家에 의해서 支配되었다. 그들은 1840~60년에는 프랑스銀行 理事席의 47%, 그리고 1860~80년에도 36%를 차지하였고, 한편 工業으로부터 새로 보충된 理事席은 1880~1900년에 비로소 35%, 그리고 1900~1920년에 43%에 이르렀다. 時代가 經過함에 따라 工業企業家の 地位는 높아졌지만, 그것도 186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sup>(56)</sup>

이러한 金融構造속에서 産業企業이 銀行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었다. 小商品生産者로부터 成長한 노르망디地方의 綿工業 企業家들은 機械化의 進展에 필요한 資本不足을 경험하면서도 低利의 銀行資本을 借入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自己金融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企業成長을 제약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時期에 産業企業의 銀行으로부터의 借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銀行은 産業企業의 設立이라든가 購入을 위해서 貸付하였다. 예를 들어 1836년에 슈네데르兄弟가 르 그르조會社를 引受할 때에는 이전부터 연고가 있던 쾨이에르銀行의 支援을 받았으며 알사스의 綿工業企業家は 적극적으로 銀行貸付를 받았다. 특히 後者は 家族的 연고와 스위스金融市場과의 地理的 隣接性으로 말미암아 銀行借入에서 다른 地域의 企業家보다 有利한 위치에 있었다. 메리앙兄弟銀行(The Merian brothers)은 몰루스(Mulhouse)의 두 綿工業企業(Dollfus-Mieg et Cie와 Nicolas Koechlin et Cie)에 대해서 거액의 貸付를 하였다. 스트라스부그(Strasbourg)의 銀行家들은 機械製作會社設立에 金融을 제공하였다. <sup>(57)</sup> 銀行은 産業企業의 設立이라든가 購入을 위한 貸付만이 아니라 産業企業에 대해서 商業證券의 割引 또는 短期貸付를 하였다. 특히 地方銀行들은 産業企業家에게 短期金融을 하였으며 그 企業에 깊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地方銀行의 資金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金融力도 클 수가 없었다. 이러한 事情은 183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그들 銀行은 中·長期金融보다는 주로 短期金融을 하였다. 그들은 長期金融에 따르는 危險을 회피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들 銀行은 家族經營이 많았고 地方事情에 精通할 때만 貸付를 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고 長期産業金融을 하기 위한 銀行設立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피뜨(Jacques Laffitte)는 1821년에 銀行을 設立하여 綿工業企業家들에게도 상당액의 融資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失敗하였다. 뒤이어 그는 1837년에 商工業企業家에 資本을 공급하기 위해서 資本金 1,500만프랑의 株式銀行(Caisse Général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Caisse Laffitte)를 설립하였다. 同

(56) Levy-Leboyer, *op. cit.*, p.102.

(57) Fohlen, *op. cit.*, p.369.

銀行은 商業銀行의 기능만이 아니라 投資銀行의 기능도 수행하였지만 設立目的과는 달리 産業企業에 대한 金融보다도 주로 鐵道 등 公益事業에 대한 金融을 하였다. 이러한 金融事情은 1860년대에 株式會社組織의 大銀行이 設立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프 방끄를 중심으로 하는 金融寡頭體制는 2月革命(1848년)에 따른 金融改革으로 무너지고 프랑스 金融體制는 '民主化'되게 되었다. 첫째로 프랑스銀行이 개편되어 中央銀行으로서의 地位가 강화되었다. 同銀行은 종래의 地方發券銀行들을 支店으로 편입하여 發券權을 독점하는 한편 액면 100프랑의 銀行券을 발행하고 그의 全國의인 流通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는 全國 67개 地域에 國民割引銀行(Comptoir d'Escompte)를 설립(1848년)하여 그때까지 프랑스銀行이 오프 방끄의 보증하에서 수행하던 割引業務의 한계를 타파하고 中小商工業企業家에 대한 어음割引業務를 확대하였다. 세째로 委託倉庫制度가 창설되어 倉庫證券에 의한 商工業企業家の 滯貨金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改革은 오프방끄에 의한 금융과 두체제를 무너뜨리고 中小商工業企業家에 대한 短期金融을 확대한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그러나 長期金融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技術革新의 進展과 企業規模의 확대가 요청되는 속에서 長期金融의 요구도 커지고 있었지만 금융체제의 중심에 있는 오프 방끄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長期金融을 위한 株式會社組織의 銀行으로서의 크레디 모빌리에(Crédit Mobilier)의 설립(1852년)은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크레디 모빌리에는 産業金融의 필요성을 강조한 생시몽의 思想的 영향을 받은 베레르兄弟(Issac-Emile Pereire)가 나폴레옹3세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설립한 投資銀行이었다. 同銀行은 6천만프랑의 자본금을 가지고 6억프랑까지의 債券을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획득하였다. 同銀行은 鐵道金融을 비롯하여 産業企業의 발기라든가 株式引受를 통해서 적극적인 産業金融을 하였으며 그 活動은 諸外國의 鐵道, 産業, 銀行 등에도 미쳤다. 크레디 모빌리에의 출현과 그의 적극적인 産業金融活動은 오프 방끄가 支配하는 金融體制와 그의 전통적인 金融慣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로프실드로 대표되는 오프 방끄는 전통적인 금융관행에서 전진하여 産業金融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거셴크론(A. Gerschenkron)은 新富(크레디 모빌리에)가 舊富(로프실드)로 하여금 産業金融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레디 모빌리에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sup>(58)</sup> 또한 크레디 모빌리에에는 독일을 비롯한 대륙제국의 銀行의 長期産業金融의 原型이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적극적인

(58)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 Cambridge, Massachusetts, 1962, pp.12-3; D. Landes, "The Old Bank and the New: The Financial Revolu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Essays in European Economic History 1789~1914*, ed. by F. Crouzet, W.A. Chaloner and W.M. Stern, London, 1969, pp.112-127.

의의에도 불구하고 르레디 모빌리가 産業企業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한 長期金融은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사실 르레디 모빌리의 投資의 중점은 鐵道, 海運, 都市交通, 公益事業(水道, 가스) 등에 있었고 産業企業에 대한 投資는 중요하지 않았다.<sup>(59)</sup> 르레디 모빌리는 로프쉴드와의 과도한 경쟁속에서 그 자신이 投機的으로 되어 결국 1867년에 파산하고 그후 預金銀行으로 재편성되었다.

프랑스에서 近代의 預金銀行制度가 확립된 것은 1860년대에 들어서 株式會社組織의 預金銀行이 設立되면서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르레디 리요네(Credit Lyonnais, 1863)와 쓰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1864)이었다. 특히 르레디 리요네는 그후 전국적 규모의 은행으로 발전하여 1908년에는 전국주요도시에서 266개 支店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預金銀行은 단기 尙業금융과 함께 장기 尙業금융을 수행하는 兼業銀行이었다. 그와 함께 銀行과 産業企業과의 人的 紐帶관계도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르레디 리요네의 많은 任員들이 르르르조를 비롯한 몇몇 製鐵會社와 鑛山企業의 管理委員會(administrative council)에 參與하고 있었다. 그러나 르레디 리요네의 總裁 앙리 제르망(Henri Germain)은 1863년에 리옹에서 設立된 人工染料會社(Fuchsine)의 株式의 일부를 引受하고 기타 金融支援을 하였으나, 1870년에 同會社의 파산으로 큰 損失을 본 것을 계기로 해서 長期産業金融業務로부터 후퇴하여 短期尙業金融만을 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傳統的·保守的 金融原則을 고수하여 短期尙業金融과 公債引受를 주로 하였고 특히 1880년 이후는 外國公債引受를 하였다. 따라서 銀行은 國內企業에 대한 産業金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에서의 銀行의 産業金融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쓰시에떼 제네랄은 부분적으로 産業金融을 하였으며 여타 銀行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限定된 것에 불과하였다.

카메론(R. Cameron)은 프랑스企業家로 하여금 小規模企業家로 머물게하고 小製造業의 反動的 個人主義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은 企業家活動의 脆弱性이 아니라 銀行의 産業金融의 失敗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0)</sup> 이에 대해서 트레빌코크(Clive Trebilcock)는 그 失敗는 오히려 資金需要者로서의 家族企業의 銀行借入에 대한 過度한 경계와 기피, 그리고 自己金融에의 依存에 그 원인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원인은 供給側(銀行)과 需要側(企業家)의 兩者에 다같이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金融의 自立을 고수하려는 保守的 企業家가 不安한 産業보다도 外國投資利潤을 선호하는

(59) Fohlen, *op. cit.*, p. 371.

(60) Rondo E. Cameron, ed., *Banking in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ization*, Oxford, 1967, p. 115.

保守의 金融業者와 對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61)</sup> 그러나 그 원인이 어떠한 위에서 본 프랑스의 金融條件은 企業成長에 適合한 것은 아니었다.

## 2. 企業의 經營管理

中小企業이 광범하게 存在하고 企業의 家族의 性格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프랑스에 있어서 企業의 經營管理문제는 적어도 19世紀에는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다. 中小企業의 경우 所有와 經營은 分離되지 않았고 企業經營상의 모든 責任은 企業家 單獨으로 맡았다. 그들은 自身の 責任下에 資本을 조달하고 勞動者를 고용하고 生産物을 販賣하는 産業指揮官(captain of industry)이었다. 技術이 비교적 단순하고 資本규모도 크지 않았으므로 1人 經營體制는 有效하게 기능할 수 있었다. 그 경우 會計管理의 문제는 아직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으며 비교적 단순한 會計記錄方式으로 有效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다. 프랑스에 있어서 企業의 經營管理상의 權限의 分割, 그의 縱의 및 橫의 관계에 있어서의 指揮, 調整, 會計管理 및 勞動者의 科學的 管理 등 近代의 企業管理의 諸問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株式會社組織의 大企業이 成長하고 技術이 보다 高度化하고 다수의 勞動者의 긴밀한 分業이 더욱 요구되는 20世紀에 들어서였다. 그때까지 프랑스産業企業의 經營管理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勞動力을 조달하고 管理한다는 일이었다. 工業化初期에 企業經營者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資本을 조달하여 工場을 건설하고 機械를 도입하고 勞動者를 고용하여 관리한다는 것이었지만 그중에서도 工場制下에서 勞動者를 고용·관리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工業化初期에는 企業家가 필요한 勞動力을 조달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란한 일이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人口成長은 느리고 階級分化도 進展되지 않아 全體로서의 勞動力供給이 擴大되지 않은 상태에서 工場勞動者를 필요한 만큼 조달한다는 것은 곤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企業家は 勞動力조달이 용이한 地方에서 工場을 건설한다든가 기계를 도입하였다. 특히 熟練工의 供給은 限定되어 있었다. 企業家は 熟練工을 외부에서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内部에서 教育訓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구나 고용된 勞動者는 安定的, 規則的으로 勞動하도록 管理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世紀初부터 프랑스企業家は 여러가지 制限的 方法을 도입하였다. 즉 企業家들은 熟練勞動者를 長期의 自動更新가능한 契約으로 고용하고, 勞動條件에 관한 内部規制를 두고 그것을 違反하거나 缺勤하는 경우에는 刑罰을 부과하고, 勞動者手帖(1803年)이라든가 身分證

(61) Clive Trebilcock,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Continental Powers 1780~1914*, London, 1981, pp. 177-8.



(1811年) 등 法的手段을 동원하여 勞動者의 離職을 制限하였다. 企業家들은 이러한 강압적인 方法과 함께 一般學校 또는 技術學校의 設置・支援, 醫療費補助, 協同組合商店의 設置, 低賃家屋의 提供 등 각종 社會福利施設을 통해서 企業에 대한 애착심, 忠誠心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企業은 災害에 대한 對備, 年金, 疾病, 未亡人 및 孤兒를 위한 積立金制度를 도입하였다.<sup>(62)</sup>

勞動者의 量的 및 質的 확보를 위한 企業家의 社會福利施設 및 制度의 도입은 1840年경까지는 알사스 및 프렌치 콩테(Frenche-Comté)地方의 綿工業企業 및 機械製作企業에서 그리고 孤立된 地方에 있는 製鐵 및 炭鑛企業에서 나타났으며 그후 광범한 產業과 地域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안쟁(Anzin), 생고뱅(Saint-Gobain) 및 르 크르조(Le Creusot) 등과 같은 大企業에서는 綜合的 福利計劃이 수립되었다. 르 크르조社는 1837년에 學校를 개설하고 同社의 社會福利豫算은 1869년에 20만프랑(그중 23%가 教育目的의 豫算이었다), 그리고 1900년에는 200만프랑에 달하였다.<sup>(63)</sup>

企業家에 의한 각종 社會福利施設 및 制度의 도입은 프랑스의 企業經營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家父長主義(paternalism)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프랑스의 家族企業에 있어서 企業家는 家父長的 權威를 가지고 있었으며 被雇傭者는 그의 '家臣' 또는 '家族'과 같이 인식되었다. 家父長主義下에서 家父長은 家長 또는 家族을 保護・扶養하고 그들로부터 忠誠心과 奉仕를 要求하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르 크르조社에서 企業主인 슈네데르는 일찍부터 적극적인 勞動者福利政策을 도입하였지만, 반면에 1869~70年の 大勞動爭議에서는 工場을 閉鎖하고 軍隊를 動員하면서 그것을 진압하는 강경政策을 도입하였다.<sup>(64)</sup> 勞動者가 雇傭主에 의해서 訓練되고 保護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랑스의 經營패턴리즘은 19世紀 프랑스의 勞動市場條件에 의해서 고용주에게 강요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勞資關係의 하나의 永久的 特성이 되었다.<sup>(65)</sup>

中・小규모의 家族企業에서의 1人經營體制 그리고 '家父長的・軍隊的 經營方式'<sup>(66)</sup>은 株式會社組織의 大企業이 成長하게 됨으로써 變質될 수 밖에 없었다. 企業規模가 커지고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고 機能이 分化됨에 따라 權限이 分化되고 보다 專門的 經營技術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經營體制 및 經營方式도 變化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變化는 프

(62) Levy-Leboyer, *op. cit.*, pp.94-5.

(63) Fohlen, *op. cit.*, p.95.

(64) 遠藤輝明, 앞의 논문, p.135.

(65) Levy-Leboyer, *op. cit.*, p.94. 알사스綿工業企業에서의 家父長的 勞使關係에 대해서는 古賀和文, 「フランス工業化過程におけるパテルナリスムの役割—アルザスの企業家と勞使關係—」, 『經營史學』, Vol. 13, No. 2, 1979 參照.

(66) Fohlen, *op. cit.*, p.374.

랑스에서는 19世紀後半期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20世紀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株式會社組織의 大企業의 出現에 따른 管理의 문제가 제일 먼저 제기된 것은 鐵道會社에 서였다. 1845년에 설립되어 大鐵道會社의 原型이 된 北部鐵道の 경우 초기의 管理組織으로 는 株主總會에서 선출된 管理委員會(administrative council)와 同委員會가 指名한 4명으로 구성된 執行委員會(comité de direction)가 있었다. 會社의 財務라든가 技術 등 모든 분야의 決定權=管理上的 權限은 執行委員會에 있었다. 管理委員會의 委員席은 世襲적인 封土와 같이 有力한 株主로서 처음부터 同委員會에 들어 있는 諸家族(Rothschilds, Kuhlmanns, Agaches 등)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한편 執行委員會의 構成員은 특히 國家機關(Conseil d'Etat) 출신의 高級官吏(交通문제전문가)들에 의해서 充員되고 그들이 支配人(manager)이 되어 會社의 外部와의 관계 즉 公共機關이라든가 경쟁會社와의 관계와 관련된 業務를 수행 하였다. 그와 함께 企業內部的 各 作業部署 레벨에서의 管理業務는 점차적으로 專門技術者(engineers)의 手中으로 들어 갔으며 그 權限이 증대하는 속에서 各 作業部署의 專門化와 自治權이 증대하였다. 各部署間의 커뮤니케이션은 執行委員會의 멤버가 참석한 共同委員會 또는 共同會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같은 傾向은 地域의으로도 나타나 4개지역에 總監査(inspections générales)가 設置되었다. 이렇게 해서 증대하는 機能의 多樣化에 따른 各 作業部署間의 管理上的 均衡이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 企業內部에서 專門技術者의 役割은 커지고 그들의 技術上的 知識은 좋은 經營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여기에 同社와 專門技術者의 訓練機關으로서의 그랑제꼴(Grandes École)과의 傳統的 關係가 나타나게 되었다. 同社는 특히 에콜데퐁에쇼시에(École des Ponts et Chaussées)와 에콜쌍뜨랄(École Centrale)로부터 專門技術者를 充員하였으며 管理者는 에콜데쉬앙스폴리띠끄(École des Sciences Politiques)로부터 充員하였다.<sup>(67)</sup> 北部鐵道會社와 같은 大企業에서는 業務의 專門化와 權限의 分散化가 進展되는 속에서 執行委員會와 技師의 地位가 높아지고 管理委員會의 地位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有力한 家族들은 管理委員會의 委員席을 世襲함으로써 企業 經營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行使하였다.

鐵道會社에 비해서 企業規模가 작고 業務가 단순한 19世紀의 株式會社組織의 工業企業에서는 創立家族의 權限은 보다 強力하였다. 물론 工業企業에서도 株主 또는 그 代表者, 重役(directors) 및 專門技術者와의 사이에는 北部鐵道會社에서 본 것과 유사한 權限配分の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工業企業에서 管理上的 광범한 權限은 管理委員會에 있었으며 株主總會의 役割은 株式所有를 등록하는 정도로 制限되었다. 管理委員會를 代表한 것은

(67) *Ibid.*, pp. 375-6.

會社의 設立者들이었다. 그들은 株式의 50% 내지 100%를 所有하고 會社設立時에 스스로 任命한 管理委員이 總會의 同意를 얻어 就任하면 그들은 영구히 同委員會에 머물면서 企業의 政策決定 一般에서 支配權을 행사하였다.

大企業의 경우 管理委員會는 執行權을 小委員會에 委任하기도 하였다. 小執行委員會와 管理委任會의 本部는 大分의 경우 工場立地와는 다른 銀行이라든가 政府와의 접촉을 편리하게 가질 수 있는 主要都市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立地上的의 分離는 地方工場의 管理와 工場과 本部와의 연결의 문제를 낳았다. 管理本부와 工場間의 연락이 지연되거나 순조롭지 못하였다. 統制責任이 있는 重役(directors)이라든가 支配人은 國家機關(Conseil d'Etat)出身의 公共管理人(public administrators)라든가 公證人, 地方官吏 그리고 그랑제꼴(Grandes École)출신의 專門技術者들로 充員되었다. 이들 重役·支配人이 企業에 活氣를 주고 分散된 工場을 調停·統制하였다. 大企業의 경우에는 企業의 特定業務에 專門化된 數名の 重役을 필요로 하였으며, 會社에 따라서는 이들 重役의 權限은 매우 컸다. 특히 技術的 業務는 專門技術者에 주어지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管理者가 되었다. 이러한 事例은 中規模企業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알르바르(Allevard) 鐵工所는 1842~85년에는 自手成家한 샤리에르(Eugène Charrière)에 의해서 뒤이어 1885~1905년에는 그의 사위 및 孫子에 의해서 60餘年동안 權威主義的으로 管理된후, 에꼴쌍뜨랄(École Centrale)出身의 두 專門技術者에 의해서 管理되게 되었다.<sup>(68)</sup>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企業에서는 權力의 分割, 機能의 專門化 그리고 專門技術者의 地位의 上昇이라고 하는 관련된 傾向이 점차적으로 成長하였다.

그와 함께 科學的 管理의 문제도 인식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이 方面에서의 先驅者는 테일러(F. Taylor)와 함께 近代經營學의 기초를 놓은 사람의 하나로 評價되는 파올(H. Fayol)이었다. 그는 1858年 생 데미엔느鑛山學校를 나온후 冢당뜨리 푸르삼보(Commentry Fouchambault) 炭鑛會社의 鑛山技師로 출발하여 社長職(1888~1918年)을 거쳤다. 그는 實務的 經驗을 기초로 管理活動의 體系化·理論化를 시도하여 『産業 및 一般의 管理』를 출판(1914년)하였다. 그는 企業의 모든 活動을 技術的·商業的·財務的·保全的·會計的 및 管理的 諸活動으로 分類하여 그 속에서 人間을 대상으로 하는 管理活動을 計劃, 組織, 命令, 調整 및 統制의 다섯가지 要素로 分析하였다. 파올의 管理論이 組織의 上位에 있어서의 指揮者의 管理를 分析한 데 대해서 테일러는 組織의 下位에 위치하는 工場勞動者의 現場管理를 대상으로 하였다.<sup>(69)</sup> 르 샤프트리에(H. Le Chatelier)는 1907년에 테일러의 『工場組織論』(Shop Organization, 1903)을 번역 출판하고 1912년에는 테일러의 『科學的 管理의 諸原理』

(68) *Ibid.*, pp. 374, 378.

(69) 米川伸一編, 『ヨーロッパ・アメリカ・日本の經營風土』, 1978, pp. 70-1 참조.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1911)을 번역, 출판하였다. 데일리의 科學的 管理는 第1次大戦前에 일부 企業에 도입되었으나 勞動者의 反對와 1912年の 스트라이크로 말미암아 도입범위는 限定되다가 兩次大戦中間期에 이르러 비로소 점차 확대되게 되었다.<sup>(70)</sup>

#### IV. 企業家活動의 評價

##### 1. 란데스와 소우이어의 見解

###### (1) 란데스의 見解

란데스는 프랑스企業家活動의 일반적 특징으로 零細性, 保守性, 獨立性を 들고 있다. 즉 프랑스의 企業家は 일반적으로 小資本家로서 企業經營에는 安全性을 가장 重要視하여 高率의 減債積立金에 의해서 割賦償還하고 設備更新을 싫어하여 既存設備을 老朽化될 때까지 使用하고 조심성과 節約性을 강조함으로써 保守的이었으며, 自己金融을 原則으로 最高利潤보다도 가능한 한 最高利潤率을 추구함으로써 銀行 등 外部資本의 영향에서 벗어나 企業의 獨立性を 유지하려 하였다. <sup>(71)</sup>

이러한 신중한 經營, 老朽設備, 그리고 高利潤은 競爭世界에서 企業이 成長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었다. 프랑스의 企業家は 外國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國內市場은 1860년대와 70년대의 自由貿易期를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보호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國內市場에서 그들 相互間의 경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原理적으로 볼 때 경쟁적인 상태에서 보다 경쟁력이 강한 企業이 약한 企業을 도태하면서 成長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낙후된 企業이 近代의 企業과 오랫동안 併存하였다. 란데스는 그 理由가 부분적으로는 높은 輸送費에도 있었지만 보다 기본적으로는 國內의으로도 경쟁의 통상적 메카니즘이 作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보다 능률적인 프랑스의 企業家は 경쟁기업을 제거하면서 生産力擴大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도 一定期間의 資本運營에서 高率의 利潤을 올리려고 하였다. 더구나 프랑스의 企業家は 政府로부터 關稅上의 保護만이 아니라 각종 支援을 받았다. 企業家에 대한 프랑스 政府의 각종 보호·육성 政策은 꼴베르의 重商主義이래 時期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도 계속되었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企業家は 경쟁을 통한 成長보다는 政府의 보호·육성 정책에 의존하려 하였다. 프랑스 企業家의 政府依存的 性格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sup>(72)</sup>

(70) Levy-Leboyer, *op. cit.*, pp. 116-7.

(71) David S. Landes, "French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Growth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IX, No. 1, May 1949, pp. 47-8.

(72) *Ibid.*, pp. 49-50.

물론 란데스도 프랑스에서 革新的 企業家活動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란데스 自身은 프랑스人的 創意力과 獨創性이 매우 높았고 생시몽主義의 영향을 받은 革新的 企業家들이 交通 및 銀行部門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流通部門에서는 世界最初의 百貨店을 設立하였다는 것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와같은 革新的 企業家活動의 영향이 프랑스企業의 특수한 性格에 의해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으로 資本調達方式으로서의 自己金融과 株式會社의 普及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自己金融方式은 才能과 創造力이 유일한 資產인 新參者의 出現을 촉진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으며, 株式會社의 普及遲延도 資本動員能力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無資本이면서 革新的 活動을 할 수 있는 人材의 企業에의 進入도 제약하였다. 한편 鐵道 등 株式會社가 支配的인 部門에서도 그것은 有能한 新參者에 길을 열어주기 보다는 기존의 金融利害關係集團의 地位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란데스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이 프랑스인으로 하여금 自國에서 이루어진 發明을 評價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오히려 外國에서 價値를 발휘하게 한 하나의 原因이었다. 한편 有能한 新參者도 企業界의 기존의 秩序를 존중하고 自身의 ‘分數’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페레르兄弟와 같이 결국은 파멸하였다.<sup>(73)</sup>

앞에서 본 産業革命期 프랑스企業家活動의 일반적 性格은 크게 프랑스社會의 構造와 傳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란데스는 특히 프랑스의 典型的인 企業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그의 家族企業의 性格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의 企業家活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企業은 家族의 威信과 地位를 위한 물질적 기반이었다. 企業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며 그 目的은 生産이라든가 어떤 獨立的인 理想(ideal)속에서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家族에 의해서 家族을 위해서 존재한다.”<sup>(74)</sup> 따라서 프랑스의 企業家は 그의 企業을 財貨의 生産 및 分配의 메카니즘으로서가 아니라 封建領主의 社會經濟的 기반인 莊園과 같이 家族의 地位를 높이는 ‘封土’로 보았다.<sup>(75)</sup> 家族企業은 個人的인 것이므로 自己金融을 지향하게 되고 株式會社組織의 채용을 지연시켰다. 그리고 家族企業은 愼重한 企業일 수 밖에 없었다. 家族企業의 運營에는 世襲的 財産의 保有에 관심을 갖는 家門의 承認이 필요함으로 어디까지나 愼重하여야 하고 投機的이어서는 안되었다. 프랑스에서는 富의 創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保存에도 細心한 주의가 주어졌다.<sup>(76)</sup>

(73) *Ibid.*, pp. 50-52.

(74) Landes, “French Business and the Businessman,” in Earle, ed., *op. cit.*, p. 336.

(75) Landes, “French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Growth,” *op. cit.*, p. 52.

(76) *Ibid.*, p. 53.

란데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企業이 家産으로서의 性格을 가질 때 企業은 本來의 目的과 機能을 통해서 成長하기 보다는 健實한 기반에서 安定的으로 機能하려 하였다. 란데스에 의하면 프랑스의 企業家は 企業經營 그 自體보다도 家族의 社會的 地位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企業의 安全性·健實性을 유지한다는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企業成長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의 企業家は 外部資金을 도입하지 않고 高率의 減價償却과 함께 内部留保金 즉 自己金融(auto-financement)을 基盤으로 企業을 擴張하고 最新設備과 함께 既存의 老朽設備을 끝까지 使用하고 大量生産·大量販賣보다도 多樣한 商品을 生産하며, 長期的인 最大의 利潤보다도 개개의 賣上에서 短期的인 最高利潤率을 올리려고 하였다.<sup>(77)</sup>

이와 같은 프랑스家族企業의 經營패턴은 企業의 安定的 基초가 되었다. 프랑스의 家族企業은 “成功的인 때에는 岩石과 같이 堅固하였다.”<sup>(78)</sup> 따라서 그것은 不況에 대한 抵抗力이 강하였고 큰 變動없이 存續하였다. 란데스는 家族企業의 과도한 慎重性, 安全第一主義, 調和感覺, 健實性의 추구는 企業의 安定대신에 ‘活力의 缺乏’ 및 ‘成長의 遲延’을 수반하였고 그것은 나아가 프랑스經濟의 低成長의 原因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79)</sup>

## (2) 소우이어의 見解

소우이어는 프랑스社會가 過去로부터 이어받은 傳統的 價値體系에서의 企業家活動을 企業家の 供給, 動機 및 行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란데스와 같이 그의 性格을 保守的·消極的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소우이어에 의하면 첫째로 프랑스의 傳統的 價値體系는 有能한 엘리트의 企業에의 進出을 제약하고 또한 企業家の 供給領域을 일정한 家族集團에 한정시킴으로써 企業家の 供給을 制約하였다. 프랑스社會에서의 비즈니스의 社會的 地位는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家門, 能力 및 教育을 통한 엘리트는 비즈니스가 아닌 보다 높게 평가되는 분야로 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企業家自身도 成功하면 비즈니스를 떠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傳統的 價値體系는 비즈니스 內部에서의 企業家の 進出方向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우이어에 의하면, 프랑스에서의 經濟活動의 社會的 地位는 일반적으로 土地와 軍事的 힘에 가까울수록 높고 顧客과 가까울수록 낮았기 때문에, 上流社會의 金融, 海運 및 植民地貿易과 함께 土地所有와 관련이 깊은 鑛山, 製鐵, 유리제조 등의 諸活動은 높게 評價되었지만 특수한 技能, 熟練職을 제외한 製造業一般은 높은 評價를 받지 못하였으며 小賣 및 서비스業은 가장 낮게 評價

(77) Landes, “French Business and the Businessman,” in Earle, ed., *op. cit.*, pp. 338, 346-7.

(78) *Ibid.*, p. 339.

(79) *Ibid.*, pp. 339, 346-7.

되었다. 소우이어는 이와같은 序列體系가 비지니스內部에서 部門間的 企業家供給에 영향을 미쳐 마케팅이라든가 商業에서 프랑스企業이 失敗하는 原因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어느 특정한 經濟活動이 특정한 家族集團 또는 相互交叉되는 社會集團의 ‘世襲的 封土’와 같이 그들 集團內部에서 계승됨으로써 企業家の 供給과 外部人의 비지니스에의 進入 可能性을 제약하였다.<sup>(80)</sup>

둘째로 傳統的 價値體系는 비지니스에서 企業家가 經濟的 成功을 추구하려는 動機를 制約하였다. 프랑스의 企業家は 國民的 目標과 理想과의 一體化에 의해서 動機지워진 일은 없고 個個의 企業家の 希求는 끊임없는 經濟的 成就보다도 서로 다른 階級的 目標를 指向하였다. 秩序지워진 社會階層體系속에서도 새로운 富와 權力은 二世에 利得을 주었지만 ‘各自가 自身의 位置에 따른다’ 또는 ‘分에 맞게 한다’라는 規範은 企業家の 成功에 대해서는 명백히 직적접인 社會的 報酬를 制約하였다. 自手成家한 사람은 프랑스에서는 英雄이 될 수 없었다. 또한 既存의 利害關係와 受容된 社會的 地位를 희생시키면서 成功한다는 것은 위와 밀접한 敵對感을 초래하였다. 프랑스社會에서도 財産과 所得은 매우 중요하였지만 貨幣所得이 갖는 成功의 象徵으로서의 意義는 큰 것이 되지 못하였다. 소우이어에 의하면 傳統的 家族秩序의 계승도 企業家の 動機에 큰 영향을 미쳤다. 家族構造가 既得地位를 누리는 世襲體로서 존재하는 한 企業家の 動機는 企業을 家族의 地位와 명예를 확보하기 위해서 運營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것은 부르조아의 樣式과 다양하게 結付되어 企業家로 하여금 細心, 節儉, 安全, 傳統, 危險回避로 動機지우고 企業을 利潤, 成長, 產出 등보다도 安全을 極大化하는 일종의 年金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소우이어에 의하면 계승된 傳統的 制度의 영향은 農民 및 부르조아의 영향에 의해서 강화되어 財産과 家族과의 강력한 一體感, 相續에의 執着, 損失에 대한 嫌惡, 破産을 家名의 汚點으로 보는 觀念 등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價値體系가 프랑스企業家로 하여금 積極적 활동을 하게 하는 動機를 부여하지 못하였다.<sup>(81)</sup>

세째로 傳統的인 社會構造는 企業家の 革新的 活動을 制約하였다. 社會的 패턴은 技術的 또는 競爭의 利益의 積極적인 추구를 제약하였다. 共存共榮하고 各自로 하여금 그의 位置와 機能을 유지하게 하고 身分, 階級 및 傳統을 존중한다는 原則이 市場의 힘의 作用에 反하는 패턴을 승인하였다. 市場은 所得集團보다도 社會諸階級에 의해서 規定되었다. 그것은 成長을 指向한 動態인 努力을 제약하고 工業化가 이룩할수 있는 大量生産・大量販賣를 제

(80) John E. Sawyer, "The Entrepreneur and the Social Order,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 *Men in Business*, ed. by W. Miller, 1952, p. 15.

(81) *Ibid.*, pp. 16-7.

약하였다. 舊態依然한 顧客, 生産物, 品質, 製法이 專門化와 大量生産이 얻지 못한 社會的承認을 획득하였다. 특히 商業과 配給과 같은 社會的 威信이 낮은 분야에서는 果敢한 企業家活動의 缺乏은 두드러졌다. 프랑스의 商業企業家は 商品流通을 대규모로 組織하지 못하고, 經濟의 潛在力을 製造販賣體系로서 개발하지 못하였다. 大衆의 趣味라든가 欲求에 迎合하는 것을 蔑視하는 프랑스의 社會文化的 특징은 廣告, 販賣促進, 세일즈맨십, 近代의 머친다이징의 展開에 抵抗的 要素가 되었다. 家族企業에서 傳統的 社會패턴은 '慎重'을 강조하게 하여, 細心, 中庸의 希求, 限定된 규모의 企業, 自己金融에 의한 漸次的 投資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에 다 같이 典型的으로 나타났다.<sup>(82)</sup>

소우이어도 프랑스에 있어서 革新的 企業家活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量的, 質的으로 既存秩序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秩序를 확립하리만큼 강력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나타난 革新的 活動의 예는 주로 支配的 秩序에 직접 따르지 않은 集團, 즉 프로테스탄트, 프리메이슨團員(Free Masons), 유태인, 프랑스화가 된 外國人(métèques)들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企業家は 自國內에서 이룩된 위대한 科學的·技術的 革新을 이용하는 데에 失敗를 거듭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自動車와 重電氣工業의 商業的 發達에서 초기에는 世界를 리드하였으나 初期의 利點을 利用하는 데 失敗하고 결국 美國·독일 등에 뒤지게 되었다.<sup>(83)</sup>

소우이어에 의하면 프랑스의 企業家は 쾨바르트(W. Sombart)의 高度資本主義의 부르조아의 半面—節儉, 勤勉, 計算—을 다른 半面—動的이고 끊임 없이 추진하는 企業家精神—보다 더 나타내었다. 資本主義의 발전에는 슐페타의인 古典的 企業家=信用위에서 活動하는 危險負擔革新家を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企業經營은 크게 慎重하게 富의 增殖을 피하는 傳統에 젖은 부르조아에 의해서 擔當됨으로써 슐페타의인 企業家活動이 展開되지는 못하였다.<sup>(84)</sup>

요컨대 소우이어는 계승된 傳統的 價値體系가 프랑스에서 有能한 엘리트의 비즈니스에의 進出을 制約할 뿐만 아니라 企業家的 供給領域을 일정한 家族集團에 限定시키고, 끝없는 成長을 지향하는 企業家的 動機를 制約하고, 적극적이고 革新的인 企業家的 行動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프랑스經濟의 低成長을 결과하게 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 2. 레비 르보아이에의 見解

프랑스의 企業家活動이 保守的이고 消極的이었다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sup>(85)</sup> 앞

(82) *Ibid.*, pp. 17-8.

(83) *Ibid.*, pp. 18-9.

(84) *Ibid.*, p. 19.

(85) Levy-Leboyer, *op. cit.*, p. 88 참조.



에서 고찰한 란테스—소우이어의 主張도 이러한 立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企業家活動의 특질을 란테스—소우이어의 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은 一面的인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거셴크론(A. Gerschenkron)은 란테스가 自身の 命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鐵道, 鑛山, 鐵鋼, 自動車, 銀行 및 百貨店 등의 諸部門에서 나타난 프랑스 企業家의 적극적인 活動을 정당하게 評價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部門에 따라서는 革新的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86)</sup> 특히 최근의 諸研究는 프랑스 企業家의 적극적인 革新的 活動을 강조하는 경향에 있다. 예를 들어 카메론(R.E. Cameron)은 프랑스의 資本輸出과 그에 수반된 유럽大陸 諸國에서의 鐵道建設 및 諸工業部門에서 프랑스 企業家가 적극적인 活動을 하고 유럽大陸의 工業化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87)</sup>

특히 란테스—소우이어 命題를 批判하고 프랑스 企業家가 合理的으로 行動하였다는 것을 주장한 學者는 레비 르보아이에(M. Levy-Leboyer)였다. 그는 프랑스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광범한 存在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 企業家가 大企業에로의 成長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活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의 企業經營環境에 合目的的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며 中小企業이라고해서 반드시 效率性이 낮고 保守的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高級品·奢侈品의 少量生産에 특화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中小企業이 效率的이고 伸縮的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企業家의 目標와 行動은 企業規模에 따라 달랐다고 보았다. 그는 中小企業은 外部金融에서는 限界를 가지면도 勞動者의 利用에서는 效率的이었으며 市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市場의 變化에 適應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따라서 消費者의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技術的 成就 또는 다양한 商品生産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大企業은 大量生産을 통한 設備償還, 商品의 規則的 供給, 長期의 利潤의 安定을 原則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大企業은 技術進步, 높은 에너지 利用可能性, 生産 및 分配過程에서의 在庫品의 合理的 利用, 보다 나은 人事管理 등에 의해서 보다 成功的인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필요에서 大企業도 成長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88)</sup>

특히 르 보아이에는 프랑스 企業의 存在形態로서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並存이라고 하는 二重構造를 주목하면서 한편에서 大企業이 成長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中小企業이 광범하게

(86) A. Gerschenkron, "Social Attitudes,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Vol. VI, No. 1, 1953(이 論文은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 Cambridge, Massachusetts, 1962, pp. 52-71에 再收錄되어 있음), p. 10.

(87) Rondo E. Cameron, *Franc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urope 1800~1914, Conquests of Peace and Seeds of War*, N.Y., 1975, 참조.

(88) Levy-Leboyer, *op. cit.*, pp. 111-2.



存在하게 된 것은 프랑스企業家가 ‘잘못된 또는 빈약한 經營政策’이나 經營規模의 확대를 拒否한 ‘말더스의 戰略’을 도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産業構造의 性格이라든가 人口 停滯, 都市化의 遲滯, 政治的 環境 등 外部的 諸要因에 有效하게 適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企業家活動은 프랑스의 經濟成長을 조건지운 여러 要因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또한 프랑스에서는 有能한 企業家가 不足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89)</sup>

르보아이에의 인식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19世紀 프랑스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企業家 活動이 20世紀에 들어 새로운 轉換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19世紀와 그 후에도 企業에서 工業生産은 매우 伸縮의이었고 企業家의 固定資本은 相對的으로 작았고 下 請勞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社員間的 配當金支給을 줄이고 社內留保를 극대화 하면서 金融的 自立을 指向하고 不況期에는 政府保護를 받으려고 하였고 企業經營은 銀行 計定 또는 家計의 管理이상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러한 事情은 20世紀에 들어서 크게 달라졌다. 1890년이후의 복합적 技術의 발달과 市場의 擴大는 近代의 部門에서 大企業의 成長을 結果하였다. 특히 第1次大戰期과 1920年代에는 中小企業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편에서 企業의 統合過程과 企業規模의 擴大過程이 진전되었으며 競爭의 排除, 大量生産, 大量販賣가 강조되었다. 企業이 大型化됨에 따라 效率性의 實現이 요구되게 되고 科學的 管理方法도 兩次大戰 中間期에는 점차적으로 普及되었다.<sup>(90)</sup>

르보아이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만약에 이들 근본적인 經濟的 및 社會的 諸變化를 고려에 넣는다면 프랑스企業家의 ‘非合理性’에 대해서 제기된 傳統的 諸問題 즉 企業規模의 擴大를 拒否하였다는 主張은 그 有效性을 크게 喪失할 것이다. … 많은 企業家에 의한 生産單位의 擴大, 企業의 좁은 競爭觀念의 拋棄, 部門에 따른 工業의 合理化, 個別企業의 同業者協會에의 종속, 새로운 技術革新, 그리고 經營組織에서의 經營者와 勞動者의 役割의 보다 明確한 規定 등을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들—이들 모든 接近은 1920年代와 30年代初에는 이미 잘 알려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프랑스 企業家가 動態的·近代의 工業發展에 關係되고 있다는 징조이다.”<sup>(91)</sup>

그러면 프랑스企業家의 性格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란테스—소우이어命題와 레비 르보아이에 命題는 어떻게 評價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兩者의 見解는 그것이 提示된 時代的 背景에서 다르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즉 前者의 消極的·否定的 見解는 프랑스가 先行한 長期間에 걸친 經濟沈滯에 뒤이어 戰後의 經濟回復이 遲滯되고있던 悲觀的인 時

(89) *Ibid.*, pp. 114-28.

(90) *Ibid.*, pp. 116-9.

(91) *Ibid.*, p. 131.

期에 하나의 經濟主體로서의 企業家活動의 失敗를 강조한 것인 데 대해서 後者는 1950年代 中葉이후 長期에 걸친 프랑스經濟의 高度成長의 經驗을 전제로 하여 樂觀的 觀點에서 企業家活動에 관한 肯定的·積極的 評價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前者의 立場만을 가지고 第2次大戰후의 프랑스經濟의 高度成長期를 포함하여 프랑스經濟의 近代的 成長의 全過程에 걸쳐 프랑스企業家活動을 인식한다는 것은 一面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兩者의 見解가 의지하는 分析視角·理論的 기반이 다르다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슈페터의 企業家論과 파슨즈(T. Parsons)의 社會學理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경우 企業家は 革新的 活動을 통해서 資本主義經濟發展의 主役이 되는 것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계승된 傳統的 價值體系 또는 社會·文化構造속에서 프랑스企業家は 革新的 活動을 수행하지 못하고 따라서 프랑스經濟는 長期의 低成長 또는 相對的 停滯를 經驗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레비 르보아이에의 見解는 經濟成長論 내지 經營管理論의 기반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企業家活動을 經濟成長에 影響을 주는 諸要因중의 하나이며, 프랑스의 경우 企業家活動의 失敗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세째로 兩者의 見解는 프랑스企業家活動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19世紀에 관한 한 그의 特徵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레비 르보아이에의 경우 19世紀 프랑스企業 및 企業家活動의 특징적 양상은 企業家가 그들을 둘러싼 社會經濟的 環境에 有效하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企業家活動의 消極性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企業家活動이 보다 動態的·合理的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20世紀에 들어서였다. 란데스·소우이 어도 프랑스企業家活動의 諸特徵을 그의 社會·文化的 環境과의 관련에서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企業家活動을 특징지은 企業風土=社會·文化的 環境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企業風土=社會·文化的 環境

### 1. 프랑스 市民社會의 性格

現代프랑스社會의 基本성격은 역사적으로 大革命(1789년)에 기원을 가지고 있다. 大革命 過程에서 확립된 市民社會의 原理가 그후의 歷史過程에서 현실적으로는 變화의 양상을 나타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존속하여 프랑스社會·經濟의 존재형태를 특징지우는 基本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프랑스市民社會은 大革命에 의해서 絶對君主-領主의 支配體制·特權體制로서의 舊體制(ancien régime)가 타도되고 民衆의 社會·經濟的 自由가 실현됨으로써 成立하였다. 그것은 資本主義 성립의 本質적 전제조건이었다. 資本主義는 社會的·身分的 自由와 經濟活動의 自由를 전제로 해서 展開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革命은 부르조아 革命으로서 17世紀중엽에 수행된 英國의 市民革命과 같은 性格의 것이었다. 그러나 英國의 市民革命이 封建體制를 타도하고 民衆의 社會的=身分的 및 經濟的 自由를 保障함으로써 부르조아가 成長하고 資本主義가 발달할 수 있는 本質 條件을 창출한 데 대해서 프랑스革命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社會經濟的 自由를 통한 資本主義와 함께 小商品生産者=小부르조아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확고히 함으로써 經濟的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였다는 데에 本質적 差異가 있었다. 이와 같은 市民革命이 추구한 理念의 差異가 그후 兩國의 市民社會를 性格지우는 本質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프랑스革命의 二重의 成果는 革命過程에서 나타난 主導勢力의 交替에 따라 두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革命初期의 地主와 商工業부르조아를 대표하는 革命勢力은 부르조아를 중심으로 하는 市民社會의 建設을 지향하였다. 즉 立憲議會는 1789년의 ‘封建的 諸特權의 폐기에 관한 布告’에 의해서 封建領主의 諸特權을 폐기하는 한편 農民을 隸屬의 地位에서 무상으로 해방하여 身分적으로 自由롭게 하였으며, 1791년에는 길드制度를 폐지하여 經濟活動의 自由를 제도적으로 確立하였다. 그와 함께 國內交通을 제약하던 領主의 通過稅를 폐기하고 農地인클로우저의 自由 및 共同放牧地의 私有權을 부여하였다. 한편 政治的으로는 財產所有額을 기준으로 選舉權을 제한하여 有產者가 支配하는 政治體制를 도입하였다. 이렇듯 立憲議會의 改革은 封建的 諸關係를 폐기하고 社會經濟的 自由를 保障함으로써 資本主義가 아무런 制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부르조아社會의 成立을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立憲議會의 改革은 大革命의 民衆的 基盤이 되었던 農民·小商工業者=小부르조아의 利害關係와는 相衝되는 것이었다. 農民은 身分적으로는 自由를 획득하였으면서도 保有地는 그 所有權을 有償으로 購入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農地인클로우저의 自由와 共同放牧地私有權의 인정으로 經濟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한편 都市의 小商工業者는 經濟活動의 自由를 획득하였지만 經濟的 基盤은 不安定하였고 政治的 權利는 制限되었다. 이에 초기의 改革을 주도한 부르조아에 대한 農民 및 小商工業者의 抵抗이 展開되었다. 이 観点에서 革命主導權은 온건한 부르조아 議會主義派에서 過激左派로 옮겨가고 1793년에 國民公會를 통한 제2국면의 改革이 수행되게 되었다. 제2국면의 改革의 理念은 부르조아改革의 線을 한발 더 나아가 小商品生産者層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확고히 함으로써 社會

經濟的 民主主義를 具現한다는 것이었다. 즉 초기의 改革의 理念이 自由로운 勞動力을 創出하는 한편 그것을 고용하는 企業家가 주도하는 資本主義社會의 成立을 指向한 것이었다면 후기의 그것은 自身の 勞動力을 自身の 生産手段과 결합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小商品生産者=小부르조아社會의 成立을 지향한 것이었다.<sup>(92)</sup> 이러한 理念下에서 이루어진 改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國民公會의 布告를 통해서 시행된 農民保有地의 無償分與였다. 이에 農民은 自身の 保有地의 完전한 所有者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國有化된 教會土地와 亡命貴族의 土地의 分割購入에도 광범하게 참여함으로써 土地所有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英國市民革命의 土地問題가 궁극적으로 領主의 所有權을 인정하고 農民의 所有權을 否認하는 선에서 해결됨으로써 大土地所有制度의 기반이 확립되고, 19세기초의 프러시아의 農奴解放이 農民으로 하여금 保有地를 有償으로 買收하게 함으로써 容커의 大土地所有를 결과한 것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최종적으로는 農民의 土地所有와 自身の 土地를 家族勞動力을 가지고 耕作하는 小農經營體制가 확립되었다. 土地의 均分相續制度는 이러한 體制를 존속시키는 法的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은 小農經營體制에 대응한 工業經營體制는 自身の 作業場에서 수행되는 手工業生産者의 小經營이었다.

이러한 改革은 현실적으로는 大革命期의 思想的 및 政治的 條件의 所産이었지만 일단 확립된 體制는 大革命후에도 존속하면서 프랑스社會의 基本특징이 되었다. 小商品生産者는 地方的 市場을 중심으로 한 社會的 分業을 基반으로 再生産을 하였으며 그 目的은 擴大再生産을 통한 부르조아의 成長보다도 經濟的으로 安定된 獨立기반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革命이 낳은 아이로서의 小農民層은 社會的 分化를 하지않고 프랑스社會의 基本階層으로 존속하였다. 小부르조아는 부르조아의 革新的·資本主義的 性格에 대해서 保守的·反資本主義的이었다.<sup>(93)</sup>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한편에서 그들 自身の 社會經濟的 기반이 위협받는 국면에서는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프랑스社會를 政治的으로 특징지은 不安定은 小商品生産者·勞動者와 부르조아間의 利害關係의 대립에 基반을 두고 있었다.<sup>(94)</sup> 帝政과 共和政이 交替된 政治體制의 變化속에서 小商品生産者層과 勞動者階級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體制든 그들의 利害關係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原始的 資本蓄積政策을 추구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小부르조아는 時期에 따라 존립조건에 차이는 있으면서도 프랑스社會의

(92) 大革命과 프랑스資本主義의 性格에 관해서는 河野健二, 『フランス革命とその思想』, 東京, 1964, pp. 267-283 참조.

(93) 폴렌은 프랑스革命이 工業化에 不利한 方向으로 社會와 經濟를 固定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Fohle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rance," Cipolla, ed., *op. cit.*, p. 31.

(94) 19世紀의 프랑스社會는 거듭된 政治革命에도 불구하고 社會的으로는 매우 保守的이었다. Fohlen, *op. cit.*, p. 30.

기본계층으로 존속하였다. 그와 함께 勞働者階級도 강력한 세력으로 成長하였다.<sup>(95)</sup>

## 2. 政府의 役割

小商品生産者層의 再生産圈은 地方的이었다. 그들은 地方的 市場에서 필요한 原料를 구입하고 家族勞動과 自身の 生産手段을 결합하여 생산하고 販賣하였다. 그들은 社會의 分業關係를 통해서 相互의 顧客이 되었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再生産이 이루어졌다. 封建社會의 地方分權體制下에서는 地方的 再生産圈과 領主의 支配領域과의 괴리는 없었다. 그러나 大革命에 의해서 領主的 支配體制가 허물어지고 全國이 中央政府의 직접적인 統制體制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全國을 통괄할 강력한 權威와 手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에서는 정비된 行政體系와 官僚制度를 가진 政府의 강력한 中央集權體制가 나타나게 되었다.<sup>(96)</sup> 강력한 中央集權體制는 나폴레옹의 第1帝政期에 실현되었으며 그후 政府는 體制의 變化와는 관계없이 社會經濟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全國의인 데두리에서 成長하는 부르조아도 政府에 대항하면서 또는 그에 강력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經濟·社會를 주도할 만한 세력으로까지는 결코 成長하지 못하였으며 어디까지나 政府의 後見人的 保護에 의존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따라서 政府의 階層間的 利害關係의 調整者로서 그리고 經濟活動의 振興者 또는 統制者로서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 이러한 政府의 機能은 정비된 行政體系와 官僚制度를 통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官僚엘리트의 社會的 威信은 매우 높게 評價되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小부르조아社會는 기본적으로 地方的 데두리에서 既得의 社會經濟的 기반을 固守하려고 하는 保守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工業化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全國의 기반에서 부르조아가 成長하고 그들의 革新的 活動에 의해서 資本主義의 발전이 추진되었다. 그 경우 中央政府가 추구한 政策理念은 프랑스社會와 經濟成長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中央政府가 小부르조아를 政策的으로 보호할 때 그들의 社會經濟的 기반은 확고해질 수가 있었지만 그만큼 經濟成長은 지체되었으며, 反面에 부르조아의 革新的 活動을 支援할 때에 經濟成長은 加速化되었지만 小부르조아는 그 만큼 압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라제(C. Morazé)는 經濟成長의 局面이 國家役割의 變動과 一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1850년 이전의 適正한 經濟成長과 復古王政期의 保護主義 및 保守主義, 19世紀 중엽의 急成長과 第2帝政期에 있어서의 나폴레옹 3세의 積極主義, 1870년~20世紀 初頃の 不安定한 低成長과 第3共和政의 小부르조아의 性格을 관련지우고 있다.<sup>(97)</sup>

(95) 米川伸一編, 『經營史』, p. 141 참조.

(96) 遠藤輝明, 앞의 논문, pp. 114-5 참조.

(97) Clive Trebilcock, *op. cit.*, pp. 184-5.

나폴레옹 1세의 第1帝政期에는 프랑스資本主義의 기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諸政策이 시행되었다. 中央集權體制가 확립되고 法典이 정리되고 私有財産制度가 확립되고 프랑스銀行의 設立을 중심으로 한 金融制度가 정비되고 全國的 交通手段이 改善되고 機械의 發明·導入이 장려되고 産業企業이 保護·育成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이러한 政策은 小부르조아의 利害관계에 反하여 부르조아를 育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第1帝政은 大革命에 의해서 확립된 小商品生産者層의 기반위에서 구축된 것인 만큼 나폴레옹은 그들을 保護하면서 부르조아를 育成하였다.

第1帝政의 붕괴에 뒤이에 成立된 復古王政은 나폴레옹時代의 官僚制度를 인계받았으나 經濟政策면에서는 株式會社組織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鑛業은 政府機關(Corps des mines)를 통해서 거의 軍隊的 規律로 統制하였다. 프랑스銀行은 保守的이었고 또한 모든 革新은 억제되었다.<sup>(98)</sup> 保守主義下에서 經濟成長은 지체되었다. 뒤이은 7月王政期에는 그동안 成長해 온 上層부르조아가 政治的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政策을 추구하였다. 이 時期에는 大商人이라든가 金融業者,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알사스의 綿工業企業과 製鐵企業이 成長하고 프랑스産業革命이 進展된 時期이다. 經濟成長率은 높아졌다. 그러나 上層부르조아가 成長하는 한편에서 小부르조아 및 勞動者階級은 압박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階級間 모순은 2月革命(1848년)을 계기로 成立한 第2共和政時代에 再調整되게 되었다. 2月革命은 小부르조아와 勞動者가 自身の 社會經濟的 權利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第2共和政時代의 經濟政策은 勞動者保護가 아니라 上層부르조아의 압박으로부터 中小부르조아의 再生産기반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政府가 工業化의 추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第2帝政時代에 들어서였다. 그 경우 思想的 기반은 생시몽(Saint-Simon)의 産業主義에 있었다. 생시몽은 貴族, 地主, 軍人, 僧侶 등 非生産的 階級에 대해서 農民, 手工業者, 商人, 銀行家 등 産業階級の 중요성을 강조하고 政府가 組織·計劃하고 産業階級이 管理하는 産業社會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의 産業主義는 (1) 合理主義에 기초한 科學技術教育, (2) 銀行을 産業機關의 중심으로 한 銀行과 産業과의 結合, 즉 産業金融, (3) 鐵道建設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프랑스社會의 保守的 價值體系를 否定하고 企業家活動에 社會的 承認을 부여한 생시몽主義는 당시 많은 産業 엘리트에 의해서 受容되어 프랑스의 工業化理念이 되었다.<sup>(99)</sup> 그 영향을 크게 받은 나폴레옹

(98) *Ibid.*, p. 185.

(99)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pp. 23-4.

3世는 ‘말(馬)위의 생시몽’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적극적인 工業化政策을 추진하였다. 그는 鐵道建設을 지원하고 長期産業金融을 위해서 끄레디 모빌리에의 設立을 지원하고, 파리再建을 추진하고 섬유工業을 지원하였으며 1860년에는 英佛通商條約을 체결하여 自由貿易政策으로 전환하였다.<sup>(100)</sup> 이 時期에 프랑스産業革命은 本格的으로 전개되었으며 페레르兄弟에 의한 끄레디 모빌리에를 비롯하여 銀行이 設立되고 鐵道建設과 工業化가 進展되었다. 그 속에서 브르조아는 成長하였다. 나폴레옹 3世는 金融民主化를 통해서 中·小부르조아의 再生産기반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失業救濟政策으로 公共事業을 추진하고, 勞動組合을 合法化하였다(1868년). 그러나 第2帝政時代의 工業化의 進展, 資本主義의 발달은 大企業·上層부르조아의 成長을 촉진한 한편 中·小부르조아에게 압박을 주었다. 특히 自由貿易은 中·小부르조아에 不利하였고 그들을 反帝政으로 돌게 하였다. 勞動者의 地位가 惡化되는 속에서 그들의 階級意識은 높아지고 그들의 行動은 과격해졌다. 그것은 결국 빠리 썸문으로 귀결되었다.

빠리 썸문을 거쳐서 成立한 第3共和政은 政府의 獨自의인 經濟政策을 추구하지 못하고 利害관계를 달리하는 社會集團의 이익을 政策的으로 反映하는 데에 급급하였다. 무엇보다도 中·小부르조아의 再生産기반을 유지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自由貿易은 포기되고 1881년의 關稅法에 의해 保護貿易으로 전환되었다. 勞動者의 保護政策이 시행되고 勞動組合의 地位가 강화되면서 勞動運動은 高揚되었다. 한편 上層부르조아의 利害關係도 무시할 수 없었다. 社會諸集團은 政府의 保護를 기대하고 政府는 그에 끌려 다녔다. 이들 社會集團間의 勢力均衡의 變動이 第3共和政를 특징지은 政治的 不安의 背景에 있었다. 이 時期의 經濟成長은 매우 낮은 것이었다. 第3共和政의 經濟政策은 20世紀의 兩次大戰中間期에도 계속되었다. 中·小부르조아의 經營기반의 유지와 확대를 보장하는 정책은 계속되었으며, 그 속에서 勞動者의 地位도 현저히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大革命을 계기로 확립된 小부르조아의 市民社會의 性格은 그후의 역사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존속하여 現代프랑스社會에 계승되었다.

### 3. 社會的 價値體系

#### (1) 反資本主義의 風土

파슨즈(Talcott Parsons)에 의하면 모든 社會는 當該社會에서 각 개인이 서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役割을 規定하는 ‘役割期待’의 體系를 가지고 있으며, 그 體系는 報償과 應報의 體系로 보호된다. 그리고 役割期待와 그의 보호메카니즘은 社會의 개별 구성원의 활동

(100) Clive Trebilcock, *op. cit.*, pp. 185-6.



을 실질적으로 조건지을 수 있는 '社會的 價値體系'를 구성한다.<sup>(101)</sup> 따라서 企業家가 지향하는 目的들이 유효하게 추구될 수 있으려면, 危險負擔, 利潤動機, 非人格의·非家族的의 組織등 資本主義의 기본적 행동패턴이 社會의 支配的 價値體系와 잘 연결되고 '社會的 承認'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企業家活動이 社會의 支配的 價値體系下에서 社會的 承認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有利하게 전개될 수 있었으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反資本主義的 價値體系가 우세할 경우 그것은 制約될 수 밖에 없다. 經濟的 成功이 '社會的 承認'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었던 美國이라든가 工業化를 國家目標로 추구한 日本 등 諸國에서는 企業家活動은 높히 評價되고 따라서 그것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 데 대해서 傳統的 反資本主義的 價値體系가 近代社會에도 存續한 프랑스에서는 그것은 社會的 制약을 받게 되었다.

自由·平等·博愛를 기치로 한 大革命은 프랑스의 舊體制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近代市民社會를 成立시켰다. 프랑스의 近代社會는 모든 社會經濟的 自由가 보장되어 競爭的 原理 위에서 資本主義가 발전할 수 있는 부르조아社會라기보다는 社會經濟的 平等 또는 民主主義를 표방하는 小부르조아社會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成立하고 발전하였다. 農民은 代代로 土地에 매달려 家族의 經營을 묵수하고 都市의 小商品生産者는 自身の 熟練에 生産手段을 결합한 小經營을 지향하였다. 그들의 眺望은 地方的이었고 性格은 保守的이었다. 이렇듯 小부르조아는 自身の 生産手段과 勞動力을 결합하여 家族의 經濟的 獨立을 실현한다는 것을 理想으로 하였고 그것을 위협하는 上層부르조아라든가 政府의 原始資本蓄積政策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항하였다. 한편 勞働者階級은 英國의 경우 集團의 交渉과 政治的 패미안 社會主義의 결합으로 安定된 데 대해서 프랑스의 경우는 革命的이어서 다음 革命이 黃金時代를 낳을 것이므로 日常的 改善을 추구하지 않았다.<sup>(102)</sup> 프랑스 勞働者의 과격한 운동은 革命이래의 전통으로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社會主義勢力도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階級對立관계가 거듭된 帝政과 共和政의 交替속에서 프랑스의 政治過程을 특징 지운 不安定의 기본요소였다.

프랑스社會는 階級的인 不調和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個人主義로도 특징지워진다. 킨들버거(C.P. Kindleberger)는 英國과 프랑스가 다같이 個人主義의 나라이면서 英國에서는 그것이 財産과 관계되는 데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사람과 관계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즉 英國의 個人主義는 國家라든가 다른 개인에 대한 權利 특히 財産權의 옹호를 指向하면서도 協

(101) T. Parsons and E. Shils, ed., *Towards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achusetts, 1951, Part II, pp. 190 ff;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pp. 52-8; Clive Trebilcock, *op. cit.*, p. 12 참조.

(102) Charles P. Kindleberger, *Economic Growth in France and Britain: 1851~1950*, N.Y., 1964, p. 94.

同精神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프랑스의 個人主義는 個人 또는 그 家族을 他人과의 접촉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프랑스를 4,300만 프랑스인으로 區分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協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sup>(103)</sup> 따라서 프랑스는 協同이 필요한 大業務를 조직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한편 軍隊와 같은 계급조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104)</sup> 프랑스의 정비된 官僚制度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個人主義는 大革命에 의해서 傳統的, 有機體的 國家觀이 무너지고 그대신 個別的 原子的 社會觀이 나타나면서 확립된 것이었다. 프랑스의 個人主義는 개개인의 社會的 自由·獨立과 經濟的 自立·安定을 강력하게 指向하였다. 그것은 經濟的으로는 危險負擔을 하는 成長은 회피하고 家產의 安全한 存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價値體系속에서 최소의 有效한 獨立的인 經濟活動單位는 家族이었다. 大革命으로 말미암아 教會와 國王 등 舊體制下の 諸權威가 否定되면서 프랑스社會는 그에 代身할 수 있는 것을 家族에서 찾았다. 個人은 家族의 成員으로서의 개인이었으며 個人主義는 家族主義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個人의 獨立·安全은 家族의 獨立·安全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家產의 確保와 그의 安全한 維持가 필수적이었다. 革新과 擴張의 試圖은 家族의 生産基盤을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피되어야만 하였다.<sup>(105)</sup> 企業도 家產으로서 慎重, 安全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家族企業은 그 本質에 있어서 保守的인 것이었다. 프랑스인의 利子生活者 (rentier)의 性向의 배경에는 이러한 經濟意識이 있었다.

小(petit)부르조아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는 上層(grand)부르조아가 있었다. 上層부르조아의 下位는 小부르조아의 上層과 연결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社會的 可動性(mobility)은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歷史的으로 上層부르조아는 都市의 大商人, 金融業者 및 大産業企業家들로 構成된 비교적 閉鎖的 階級이었다. 上層부르조아야말로 産業資本主義 발전의 主役으로 적극적인 企業家活動을 수행하여야 할 階級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부르조아의 家族主義의 性格과 安全第一主義, 獨立主義 및 保守主義의 諸性格은 프랑스企業家로 하여금 경쟁적·혁신적 活動을 통해서 既存의 社會經濟秩序를 變革하면서 資本主義發展을 주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適合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貴族的 價値가 支配的인 프랑스社會에서 企業家活動은 '社會的 承認'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 속에서 企業家は 부르조아의 價値를 확대 강화하여 支配的 價値로 하려는 노력보다는 스스로가 貴族的 價値體系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103) *Ibid.*, pp. 97-8.

(104) *Ibid.*, p. 110.

(105) Clive Trebilcock, *op. cit.*, pp. 137-8 참조.

周知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는 大革命을契機로 舊制度를 철저히 否定하여 近代市民社會을 成立시키고 近代民主主義의 思想 및 制度의 중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傳統的인 貴族的 價値體系가 大革命이후에도 계승되고 그것은 부르조아社會가 발전하는 歷史過程에서도 殘存하였다. 소우이어는 資本主義가 國民生活에서 차지하는 地位를 확대해 온 數世紀를 통해서, 일련의 역사적 전환은 貴族的 價値와 行動樣式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이하게 生存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하나는 舊貴族集團으로 하여금 새로운 經濟的 機能과 合體하는 方向을 지향한 英國의 모델에 따른 發展을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의 軍事的 및 行政的 機能은 減少하였는 데도 명예, 특권, 虛飾을 더욱 강조한 貴族을 永續시켰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傳統的 엘리트가 舊體制期에 國家的 理想과 象徵—威嚴, 品位, 軍人的 榮光, 個人的 榮譽, 教養, 생활양식—과 더욱 一體化함으로써 數世紀에 걸쳐서 上層부르조아의 諸要素를 ‘封建化’하였고, 한편 上層부르조아의 중요한 부분은 貴族의 慣行과 身分을 體得하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지니스와 自由業의 많은 人士가 傳統的 制度 속에서 既得權을 획득하였다. (106)

란데스는 프랑스社會에서 企業經營者는 언제나 劣等한 地位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 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貴族이 企業經營者를 파괴적 요소로 인식하여 嫌惡하였다는 것이다. 野心的인 企業經營者의 증대하는 富에 대해서 貴族은 최강의 무기인 높은 社會的 地位를 가지고 대항하였다. 貴族은 企業經營者의 實際的, 物質的 價値에 대해서는 非實際的·非物質的인 젠들만의 價値를, 新興企業經營者의 끊임없는 野望에 대해서는 家門의 威信을, 貨幣의 富의 힘에 대해서는 土地의 堅固한 安全性을, 그리고 企業經營者의 勤勉과 禁欲의 生活態度에 대해서는 餘暇의 優雅함과 豪華로운 生活樣式을 가지고 대항하였다. 貴族의 이러한 態度는 1789년과 1830년의 革命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舊體制下에서 製鐵業者라든가 유리製造業者로 활동하거나 칼베르의 産業振興政策을 추구하던 일부 貴族은 궁핍해졌다. 新世代 특히 新貴族은 企業家活動에 대해서 名儀와 威信을 빌려주고 철도, 보험 및 기타 株式會社企業에 投資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集團으로서의 貴族階級은 그러한 새로운 方式을 取하지 않았으며 7月王政初期에는 그러한 方式에 대한 두드러진 反動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립된 貴族의 價値의 優位는 企業家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企業家は 社會的 上昇을 위해서 貴族씨클에 들어가려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所領을 구입하거나 貴族과 婚姻關係를 맺었다. 所領은 가장 安全한 投資對象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地位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젠들만의 대부분은 不在地主였다. 企

(106) Sawyer, "The Entrepreneur and the Social Order," in Miller ed., *op. cit.*, p. 13.

業家の 非生産的 對象에의 投資는 工業投資를 制約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었다. <sup>(107)</sup>

둘째는 貴族集團과 一般大衆集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專門職業集團으로서의 부르조아集團內에서도 企業經營者는 다른 것이 同一하다면 最下層으로 看做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偏見은 프랑스革命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로 官僚와 自由專門職으로 구성된 舊부르조아는 新興資本家에 대항하여 그들의 높은 社會的 地位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前者의 後者에 대한 社會的 優位가 확립되었고, 兩階層間의 불쾌한 差別은 第1次大戰후에는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들은 外交官, 軍人, 高級官吏 또는 自由專門職(profession)과 같은 전통적으로 영광된 職業을 선택하였으며 企業經營者의 아들도 그러하였다. 大企業家의 경우는 子孫이 그 뒤를 이었지만 그것은 家族世襲財産의 維持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幸運을 갖지 못한 平均的인 企業經營者는 自由專門職으로 몰렸으며, 그 結果 下層企業家水準에서는 不安定하였다. <sup>(108)</sup>

세째는 企業家를 蔑視하는 貴族의 偏見은 文學 및 藝術의 價値를 尊重하는 知識人에 의해서 커졌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부르조아와 知識人間의 不和는 오래된 것이었다. 부르조아 특히 企業經營者는 知識人을 꺼려하였으며 知識人은 돈벌이하는 모든 사람을 우둔하고 위선적인 俗物根性的 정수로 보았다. <sup>(109)</sup>

企業家에 대해서 貴族, 高級 官僚 및 自由專門職이 社會的으로 높이 評價되고 實利를 추구하여 行動하는 經濟人 보다는 論理的 思考力과 一般教養을 갖춘 自由職業人이라든가 ‘教養人’을 높이 評價하는 프랑스社會의 價値體系는 反비지니스·反資本主義的인 것이었다. <sup>(110)</sup>

프랑스의 宗教的 基盤도 利潤의 極大化를 추구하는 資本主義의 발전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는 凱톨릭이 우세한 舊敎의 나라이다. 프랑스에서도 알사스의 綿工業을 중심으로 많은 프로테스탄트의 企業家가 발생하였고 파리의 오프방끄에는 프로테스탄트와 유대系의 有力한 銀行家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社會의 지배적 價値體系에서 逸脫한 少數集團인 만큼 有能한 사람들은 그들의 能力을 企業家活動에서 발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니만큼 그들은 宗派的 結集力이 강하였고 또한 기존의 지배적 價値體系에 구애되지 않고 적극적인 企業家活動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sup>(111)</sup> 더구나 프로테스탄

(107) Landes, "French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Growth," *op. cit.*, pp. 54-5.

(108) *Ibid.*, p. 56.

(109) *Ibid.*, p. 57.

(110) 프랑스社會·文化의 反資本主義的 性格에 관해서는 吉森賢, 『フランス企業の發想と行動』, 東京, 1984, 第1部 참조.

(111) Landes, *op. cit.*, p. 59.

티즘의 倫理가 企業家精神의 기반이 되었다는 베버(M. Weber)의 有名한 命題는<sup>(112)</sup> 여기서 새삼스럽게 言及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프랑스 企業家의 대부분은 凱톨릭 教徒였으며 그 典型은 노르망디의 綿工業 企業家들이었다. 凱톨릭 教理에 입각한 經濟 倫理는 전통적으로 ‘公正價格’, ‘高利禁止’ 그리고 ‘適正利潤’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企業家는 適正利潤을 통해서 神이 創造한 社會秩序를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過大한 利潤을 추구하고 巨大한 富를 축적함으로써 社會秩序를 깨뜨리는 것은 비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凱톨릭의 經濟 倫理는 프랑스 中小企業의 活動에 적합한 반면, 利潤 極大化를 추구하는 舍페더의인 革新的 企業家活動에는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宗教 倫理도 프랑스 社會의 傳統的·保守的 價値體系에 대응한 것이었다.

## (2) 教育制度의 性格

企業家의 才質向上과 관계되는 教育訓練도 社會的 價値體系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프랑스의 教育制度는 大革命期에 改革되었다. 그러나 小부르조아의 教育과 관계가 깊은 初等教育은 빈약하였다. 1835년경의 프랑스에서는 地方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地域도 있었지만 全國의 識字率은 40% 정도(잉글랜드 65%)로 工業化初期에 필요한 最低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870年代에 들어 識字率은 약 80%에 이르러 잉글랜드와 비슷한 水準에 도달하였다. 工業化初期의 낮은 教育水準은 企業家의 訓練에 不利한 조건이었다.<sup>(113)</sup> 나폴레옹의 教育改革도 國民全體의 教育水準을 높인다는 것보다 有能한 軍將校와 官吏를 양성한다는 데에 그 目的이 있었다. 大革命期의 教育改革속에서 나타난 教育制度로서 企業經營者의 教育訓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綜合大學(université)과는 다른 理工系 單科大學으로서의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이었다.

그랑제콜의 대표적인 것은 에콜 폴리테크니크(École polytechnique)였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軍將校 및 軍事技術要員을 養成하기 위해서 設立된 이 學校는 軍의 高級將校만이 아니라 高級官吏 그리고 후에는 企業의 高級幹部 등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學校로서 최고의 權威와 社會的 評價를 획득하였다. 그 밖에는 土木, 橋梁, 道路, 鐵道 등 분야의 專門技術者를 養成하기 위한 學校(École des ponts et chaussées), 政府의 石炭 및 鑛山專門技術要員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École des mines)가 있었다. 한편 機械工學系統의 학교로는 콩세르바토르(Conservatoire des arts et métiers), 에콜쟁뜨랄(Ecole centrale des arts et manu-

(112)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XX und XXI. 1904-5; 權世元·姜命圭 共譯,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1958 참조.

(113) Clive Trebilcock, *op. cit.*, p. 194; Fohle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rance*, Cipolla, ed., *op. cit.*, pp. 23-4.

facture) 그리고 에꼴데아르뜨에메티에르(Ecole des arts et metiers) 등이 있었다. 콩제르마포르르는大革命期에 창설된 學校로서 알사스의 紡績企業家 케츨린(N. Koechlin) 및 돌프스(E. Dullfus), 大製鐵企業家 슈네테르(Joseph-Eugene Schneider)라든가 織機발명으로서 有名한 자까르(Joseph-Marie Jacquart) 등을 배출하였고 게이 뤼썩(Gay-Lussac) 밑에서의 同校의 化學教育은 19世紀前半期에 유럽에서 가장 앞서고 있었다. 보다 많은 高級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 企業家集團에 의해서 設立된(1829년) 에꼴쌍뜨랄은 후에(1857년) 國立으로 전환되어 19世紀 말엽이래 그랑제꼴로 분류되게 되었으며 에꼴데아르뜨에메티에르는 技能工 및 職場과 企業의 中間幹部를 양성·공급하기 위해서大革命前夜에 設立된 학교로서 근래에 이르러 그랑제꼴로 분류되게 되었다. 企業經營者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商業系그랑제꼴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1881년에 파리 商工會議所에 의해서 設立된 파리의 H.E.C.(Écoles des hautes études commerciales)였다.<sup>(114)</sup> (一般大學에서 經營學科目이 개설된 것은 1955년 이후의 일이었다). 프랑스의 많은 產業企業家라든가 科學·技術專門家は 이들 學校에서 배출되었다.

그러나 19世紀에 있어서 그랑제꼴은 產業企業이 요구하는 人材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랑제꼴에 대한 비판으로 킨들버거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들고있다.<sup>(115)</sup> 첫째는 高度의 入試基準으로 말미암아 고도의 特殊한 入試準備를 할 수 있는 者만이 入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리메크니끄의 경우 入學者는 地域의으로는 파리와 軍事 및 產業都市에 그리고 階層의으로는 中産層 이상에 偏重되는 경향이 있었다.<sup>(116)</sup> 둘째는 教科科目이 너무나 理論的이고 數學的이고 嚴格하였다는 것이다. 高等數學을 중심으로 하는 너무나 抽象的 純粹科學中心의 教育이 實用的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세째는 學校制度가 너무나 中央集權的이고 權威主義的이어서 既成科學理論과 다른 새로운 着想을 排斥하였다는 것이다. 네째는 그랑제꼴의 出身者들이 對外的으로 너무나 排他的이고 엘리트意識이 강하다는 것이다. 排他性은 그들을 강한 同窓意識과 함께 特定포스트를 特定學校出身으로 채우고 先輩가 후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하는 경향을 낳았고, 강한 엘리트意識은 그들을 傲慢하게 하여 組織에서의 不調和의 원인이 되었다. 다섯째는 그랑제꼴은 學界, 行政 및 產業界의 최고급간부를 양성하였지만 中間幹部를

(114) Charles P. Kindleberger, "Technical Education and the French Entrepreneur," in *Enterprise and Entrepreneurs in Nineteenth-and Twentieth-Century France*, ed. by Edward C. Carter II, Robert Forster, and Joseph N. Moody, 1976, pp. 5-10; Levy-Leboyer, *op. cit.*, pp. 105-6; Clive Trebilcock, *op. cit.*, pp. 194-5 참조.

(115) Kindleberger, *op. cit.*, pp. 11-3.

(116) *Ibid.*, pp. 5-6; Levy-Leboyer, *op. cit.*, p. 106.

양성하지 못하였다. 專門技術學校(École des arts et metiers)가 中間幹部를 양성하였지만 충분하지 못하였다.

특히 19世紀에 있어서 그랑제꼴出身의 企業에의 進出은 限定된 것이었다. 그들은 高級軍人이 되거나 官吏가 되었으며 專門技術者도 1860年代에 이르기까지는 政府所屬으로서 道路, 鐵道 등 交通手段이라든가 鑛山 및 冶金 등 중요한 經濟諸分野의 活動을 감독하였다. 19世紀前半期에 폴리테크닉出身에서 企業으로 進出한 數는 약 80名으로서 全體의 1.9%未滿에 불과하였다.<sup>(117)</sup> 1860년대 이후 建築, 鐵道, 鐵鋼, 機械, 化學, 電氣, 自動車 등 諸分野에서는 에꼴쌍뜨랄出身의 專門技術者들이 많이 進出하였다. 그러나 1866년 이후 政府의 技術行政의 역할이 줄어들고 再軍備計劃에 의한 高級軍事要員의 擴充으로 말미암아 폴리테크닉出身의 經濟界에서의 역할은 큰 것이 아니었다. 폴리테크닉出身이 新工業을 중심으로 企業으로 많이 진출하게 된 것은 20世紀에 들어서였다. 1890년대 이후에는 技術將校의 補充이 완료되었고 國家의 監督機能이 약화되고 行政職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政府所屬 專門技術者의 轉職이 一般化되면서 그들의 企業에의 進出은 많아졌다. 특히 第1次大戰후에는 官吏로부터의 轉職이 늘고 폴리테크닉出身의 民間部門에의 進出이 많아지게 되었다.<sup>(118)</sup>

貴族的 패턴과 ‘教養人’이 높히 評價되는 프랑스社會의 價值體系속에서 教育도 實業教育보다도 抽象的, 理論的 教育이 높히 評價되었다. 啓蒙思想의 영향을 받고 大革命期の 教育改革속에서 나타난 그랑제꼴은 그전의 大學이 古典을 중심으로 한 데 대해서 科學技術을 중심으로 教育을 指向하였다는 점에서 產業社會의 展開에 대응한 革新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教育內容을 數學·科學 등 純粹理論에 置重함으로써 많은 뛰어난 發明·發見의 기초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의 應用은 輕視되어 그들 발명은 오히려 外國에서 企業化되게 되었다. 더구나 그 出身者들은 企業보다도 다른 ‘榮光된’ 職業으로 進出하였다. “프랑스의 實質資本이 프랑스 밖에서 고용되고 그것이 社會的 承認을 얻은 것처럼, 프랑스의 가장 高價한 人的資本은 產業밖에서 고용되고 社會的 承認을 받았다.”<sup>(119)</sup> 또한 그들 出身者들의 學閥·엘리트主義는 企業에서의 원활한 人間관계를 곤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랑스의 教育制度도 스페인의 企業家活動에 適合한 것이 아닌 保守的인 것이었다.

(117) Levy-Leboyer, *op. cit.*, p. 106.

(118) *Ibid.*, pp. 109-111.

(119) Clive Trebilcock, *op. cit.*, p. 196.

## VI.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프랑스企業家活動의 특징을 企業의 存在形態, 産業金融 및 管理 그리고 企業風土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제 이들 諸特徵을 요약하자.

첫째로, 企業의 存在形態上的 특징은 규모면에서는 中小企業의 그리고 法的 構造면에서는 家族企業의 광범한 존재였다. 工業化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鐵道, 公益事業, 銀行 그리고 重化學工業部門을 중심으로 大企業도 成長하였지만, 産業企業의 경우 大企業의 數와 개별 經營體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대다수의 企業은 中小零細企業이었다. 企業규모면에서의 二重構造의 존재는 프랑스資本主義의 역사적 특질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우선 經濟的 條件으로는 勞動 및 資本 등 要素供給條件과 所得分配의 不公平, 높은 貯蓄性向, 市場의 分散性, 消費패턴 등 需要條件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한편 프랑스企業의 家族企業의 性格은 中小企業에서만이 아니라 大企業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나폴레옹商法典에 의해서 株式會社組織의 企業設立이 크게 制約된 속에서 産業企業은 대부분이 合名·合資會社 조직을 취하였으며 그것은 資本動員能力을 制約함으로써 企業으로 하여금 家族的 性格을 가지게 하였다. 株式會社設立이 自由화된 이후 점차적으로 設立된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에서도 家族企業의 性格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로, 企業의 産業金融上的 특징은 自己金融에 있었으며 經營管理上的 특징은 家父長的 支配에 있었다. 프랑스企業은 전형적으로는 家族資本을 중심으로 制限된 범위에서 조달된 資本을 가지고 설립되고 실현된 利潤을 再投資한다고 하는 自己金融을 통해서 成長하였다. 프랑스企業이 自己金融에 의존하게 된 데에는 한편에서 그에 대응한 經濟的·技術的 條件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獨立性を 중요시한 企業家의 銀行借入기피와 銀行의 性格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家族企業의 경우 企業은 家産으로서 安全運營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었으며 企業의 獨立성이 喪失될 수도 있는 銀行資本의 도입은 회피되었다. 한편 銀行도 주로 商業金融과 國內外 政府公債 및 鐵道등에 대한 投資를 하였고 産業企業에 대한 長期金融에는 소극적이었다. 프랑스에 있어서의 銀行의 이러한 性格은 오프 방크가 支配하는 金融寡頭體制가 무너지고 近代의 預金銀行이 成長하는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존속되었다. 經營管理面에서의 家父長的 性格은 家族企業의 경우 두드러졌다. 企業成長의 初期에 있어서 그리고 中小企業의 경우는 所有와 經營은 분리되지 않았고 企業主가 經營管理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企業主들은 家父長的 權威를 가지고 勞動者를 管理·訓練할 뿐만 아니라 勞動



者의 福利를 위한 각종 施設·制度를 도입하였다. 株式會社 組織의 大企業에서는 機能의 分化와 함께 새로운 管理組織이 나타나게 되고 專門技術者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으며, 20世紀에 들어서는 科學的 管理의 문제도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創業家族 및 有力한 家族의 權限은 강력하였다.

세제로, 프랑스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의 評價에 대해서는 란테스·소우이어의 消極的·否定的 見解와 데비 르보아이에의 積極的·肯定的 見解가 있다. 그러나 란테스가 프랑스 企業家의 一般的 특징으로 든 小規模性, 保守性 및 獨立性을 데비 르보아이에가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데비 르보아이에의 경우 그러한 諸特徵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이 消極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企業을 둘러싼 社會經濟的 條件에 合理的으로 대응한 결과 나타난 것이었으며, 특히 20世紀에 들어서 프랑스 企業家活動은 動態的·合理的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프랑스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의 諸特徵은 企業家活動을 둘러싼 社會·文化的 環境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네제로, 企業家活動을 둘러싼 프랑스의 社會·文化的 環境은 슈페티의인 革新的 企業家活動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大革命을 거쳐서 成立한 프랑스 市民社會은 기본적으로 小부르조아社會였다. 小부르조아는 기본적으로 부르조아의 革新的·資本主義的 性格에 대해서 保守的·反資本主義的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政府는 정비된 官僚制度를 가지고 保護·育成·統制政策으로 企業家活動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小부르조아의 利益에 反하여 부르조아의 成長政策을 一方的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다. 한편 社會的 價值體系도 反資本主義的 性格의 것이었다. 階級間的 對立關係, 극단적인 個人主義·家族主義·上層부르조아의 閉鎖性은 革新的 企業家活動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傳統社會로부터 계승된 貴族的 價值體系가 支配的이었던 프랑스社會에서는 企業家活動은 社會的 承認을 얻지 못하였으며 企業家は 自身の 새로운 부르조아의 價値를 확대·강화하여 社會的 支配的 價値도 확립하려 하지 않고 기존의 貴族的 價值體系로 들어가려 하였다. 企業家가 社會的으로 低評價되는 價值體系下에서 成功한 企業家は 계속적으로 企業家活動을 수행하기 보다는 貴族階級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며 엘리트는 企業보다도 官僚·軍人 등 傳統的으로 ‘榮光된 職業’을 선택하였다. 凱톨릭이 우세한 프랑스에서는 宗教倫理도 利潤極大化를 통한 資本主義的 企業發展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社會的 價值體系下에서 教育制度도 19世紀에 있어서 革新的 企業家活動의 전개에 유리한 方向으로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프랑스特有의 社會·文化的 環境속에서 형성된 프랑스 企業家活動의 諸特徵이 프랑스經濟의 長期間에 걸친 低成長 및 프랑스 資本主義의 성격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프랑스企業家活動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見解의 差가 있지만 그 특징적 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인식은 프랑스資本主義의 特質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 측면의 하나가 될 것이다.

第2次大戰후 프랑스經濟는 확대된 混合經濟體制下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였다. 政府는 經濟計劃을 실시하고 公企業部門을 戰略部門으로 해서 成長政策을 추구하였으며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高度의 經濟成長을 실현하였다. 프랑스의 經濟計劃은 經濟成長과 함께 諸階級間的 利害關係의 調整을 통한 社會的 均衡의 유지를 指向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公企業이 民間의 大企業과 함께 고도의 발전 수준에 있으며 한편 中小企業도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광범하게 존속하고 있다. 成長 第一主義가 反省되고 均衡있는 安定成長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프랑스의 經濟成長 및 資本主義발달의 歷史的 패턴과 프랑스企業家活動의 歷史的 諸特徵은 새로운 角度에서 考察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